

碩士學位論文

老人觀光客의 觀光地選擇 要因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學專攻
許 彰 訓

2005年

碩士學位論文

老人觀光客의 觀光地選擇 要因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崔 炳 吉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學專攻
許 彰 訓

2005年 2月

老人觀光客의 觀光地選擇 要因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崔 炳 吉

許 彰 訓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許彰訓의 觀光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年 12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7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1. 노인의 정의	7
2. 노인층 관광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	9
제 2 절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4
1. 관광지 개념과 분류	14
2. 관광지선택행동요인	18
제 3 절 제주지역 관광객 현황	35
1. 제주지역 관광객 유형별 현황	35
2. 제주지역 관광지 현황	41
제 3 장 실증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47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47
1. 연구모형 설정	47
2. 가설 설정	48
제 2 절 조사설계	48
1. 설문지 구성	49

2. 자료분석 방법	49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측정척도의 평가	50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50
2. 변수의 신뢰성 검증	51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53
제 1 절 조사표본의 특성	53
1.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	53
2.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 분석	54
제 2 절 연구가설의 검정	56
1. 연구가설 I의 검정	56
2. 연구가설 II의 검정	72
제 3 절 분석결과의 해석	90
1. 분석결과 요약	90
2. 분석결과의 해석	92
제 5 장 결 론	95
참 고 문 헌	99
부 록 : 설 문 지	104
ABSTRACT	108



표 차 례

<표 2-1> 노년인구의 변화추이	9
<표 2-2> 노인여가시간의 활용의향	10
<표 2-3>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35
<표 2-4> 관광객 방문목적별 내국인 입도 현황	37
<표 2-5> 2003년도 방문목적별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	38
<표 2-6> 월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95 ~'03)	40
<표 2-7> 제주지역 노인 관광객 무료입장시설 현황	41
<표 2-8> 시·군별 관광지 입장 현황	44
<표 3-1> 설문지의 구성	49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
<표 3-3> 신뢰성 검증결과	52
<표 4-1>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	54
<표 4-2>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55
<표 4-3>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55
<표 4-4> 성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57
<표 4-5> 연령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58
<표 4-6> 가계 월소득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0
<표 4-7> 주 소득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1
<표 4-8>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2
<표 4-9>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3
<표 4-10> 여행기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5
<표 4-11> 여행경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6
<표 4-12> 동행인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7
<표 4-13> 동행인 수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68
<표 4-14> 관광목적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70
<표 4-15> 관광추천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71

<표 4-16>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	72
<표 4-17> 성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74
<표 4-18> 연령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75
<표 4-19> 가계 월소득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76
<표 4-20> 주 소득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78
<표 4-21>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78
<표 4-22>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	79
<표 4-23> 여행기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1
<표 4-24> 여행경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3
<표 4-25> 동행인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4
<표 4-26> 동행인 수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6
<표 4-27> 관광목적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7
<표 4-28> 관광추천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88
<표 4-29>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	90
<표 4-30> 가설의 채택여부	91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구성	5
<그림 2-1> 관광지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21
<그림 2-2> 내적탐색과 외적탐색의 관계	24
<그림 2-3> 대안평가와 구매의사결정사이의 단계	26
<그림 2-4>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36
<그림 2-5> 관광객 방문목적별 내국인 입도 현황	37
<그림 3-1> 연구모형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생활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욕구 중에는 관광욕구도 포함되는데, 이는 고도화된 사회, 문화, 경제생활 중에서 인간이 갖는 대표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룩한 국민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가고 있고 근대 이후 핵가족화에서 저출산 또는 무출산율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 시켰는데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 경우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5%를 넘을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¹⁾.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추이를 보면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층인구가 전 인구의 2.9%인 72만6천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7.2%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년층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 1백15년, 미국 75년, 일본 2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이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앞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관광패턴도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연금제도가 보편화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의 문제도 생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하루 대부분이 여가시간이라 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적절한 여가활동은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1)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4. p.6.

2) 상계서, p.21.

서구사회에서는 노년층 여가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노년층의 여가나 관광실태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노년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노년층 여가행동에 관한 연구는 노년층이 젊은층과는 서로 다른 여행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행동 수준을 확대 적용하여 노년층 관광행동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노년층의 관광행동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집단에 따라 다르고, 각 집단이 나타내는 문제의 근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노인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박탈했고, 사회적 역할면에서는 강제성과 의무성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전 인구의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행자의 연령 구성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시장에서도 그 증가세가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으며 노인을 관광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심리와 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³⁾.

우리나라의 연간국내관광 수요도 2000년에 1년간 숙박 및 당일 관광에 참가하는 총 참가자수는 약 4억5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량의 국민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의 연간 국내 관광 참가비율은 여행자 수의 3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활동적인 다양한 상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⁴⁾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은 그 동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사회변화로 인한 노년층의 생활변화를 감안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와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년층의 생활변화는 젊은층이 중요하

3) 김 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정책학연구」, 제2호 제17호, 한국관광정책학회 2003, pp. 64-68.

4) 삼성경제연구소,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p.35.

게 고려하는 관광지 선택요인과는 다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인관광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광지 선택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를 방문한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인관광의 특성과 관광지 선택요인, 관광활동 만족도를 분석해보고으로써 노인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관광객과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한다.

둘째, 연구지역인 제주지역의 관광현황을 파악하고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제주지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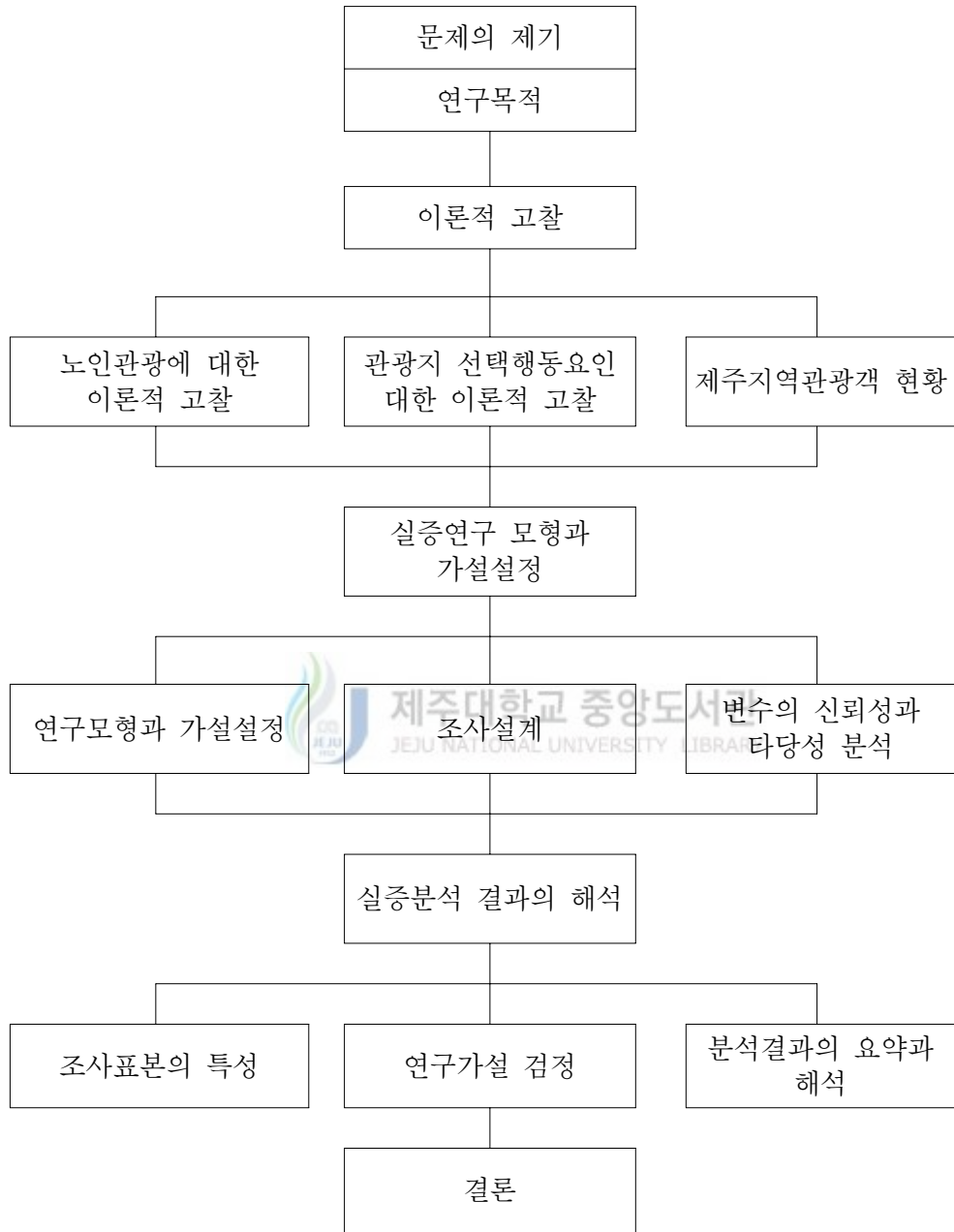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 제1절에서는 노인의 정의, 노인층 관광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2절은 관광지 개념과 분류, 관광지 선택 행동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연구지역인 제주지역의 관광 현황을 기술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실증연구 모형과 가설설정으로 제1절에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설정, 제2절에서는 조사설계, 제3절에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으로 제1절에는 조사표본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제2절은 연구가설 검정, 제3절은 분석결과의 요약과 해석을 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연구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관광객과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분석의 준거로 삼았으며, 실증연구의 경우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04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었다.

조사는 연구자의 주관 하에 충분히 교육받은 조사원 5인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휴대해서 제주국제공항 출발대합실에서 제주관광을 마치고 이도하는 노인관광객 25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방문한 노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조사를 1년간 계절별, 월별로 실시하여 노인관광에 대한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을 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노인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관광객에 대한 관광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정의

노인(老人)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한 국가나 사회의 경제·문화적 배경과 습관은 물론,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을 가지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1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제2회 국제노인학회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에서 내려진 정의를 보면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셋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다섯째,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Harvighurst⁶⁾는 노년층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보다는 사회적 역할, 즉 일상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노인을 신체적 능력감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정적인 개념보다는 일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Tibbitts⁷⁾는 노인이란, 생리적·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 개성의 기능이 감퇴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과거 지향적 태도를 지니는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감」, 1971, p.109.

6) R. J. Harvighurst, *The Sociological meaning of Aging*, Jack botwitic, Aging and Behavio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pp.1-8.

7) 김현조, “노인문제와 사회정책”, 『사회복지』 통권5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p.32. 재인용.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인의 연령과 신체적 기능, 노인의 의식 등을 각기 특징 지어주는 연령의 경계를 말해주는 노령선은 육체연령, 심리적 유형, 사회적 유형, 문화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육체연령이란 개인의 생리적·신체적 기능을 측정·평가하여 평균치와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산출하는데 예를 들어 30세에 계단 오르기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세에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 둘째로, 심리적 연령이란 자기 자신의 연령에 대하여 주관적·심리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역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 의무, 책임의 측면에서 상대 연령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으로는 늙었다, 교수로는 젊다 등 사회적 지위와 결부시켜 생각한다. 넷째로, 각 문화에 따라 어떤 연령기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교해야한다는 소위 연령의 문화적도가 존재하는데 즉,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연령에 관한 판단의 척도를 공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연령이 갖는 문화적 의미에 따라 노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⁸⁾. 결국 노인이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여 사회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현업에서 은퇴한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및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사회생활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에 관한 이상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살펴볼 때 노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몇 살이라는 연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생물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2-1>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노령선에 대한 국민적 인식조사⁹⁾에서는 응답자의 45%가 60세를 노령선으로 정의하였으며 65세 이상을 노령선으로 정의한 응답자는 18%였다. 이와 같이 노령선 기준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구분하면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나 1980년에는 총인구의 5.5%, 1990년에는

8) 서명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1, p.9.

9) 한국개발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6.

6.4%로 2000년에는 6.4%, 2020년에는 17.9%로 늘어나 우리나라는 2020년에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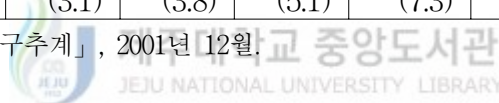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언급된 노인에 대한 정의와 현재의 정년퇴직 시기의 연장추세 및 고령화 인구추이가 필연적임을 감안하여 노령선을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을 규정하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의 노인이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여 사회적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현업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노년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2020
전 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5,985	47,925	50,650
60세이상 노인인구(%)	1,383 (5.5)	1,705 (5.4)	2,268 (6.1)	2,751 (6.4)	2,969 (6.4)	4,809 (10.3)	9,068 (17.9)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72 (7.3)	3,969 (8.3)	7,667 (15.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년 12월



2. 노인층 관광시장의 중요성과 문제점

1) 노인층 관광시장의 중요성

여가는 노동이 반대개념이고, 강제성 및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정서적인 면에서는 자유, 휴식 및 즐거움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 있어서 여가 개념은 재생산의 수단 또는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여가 성격과는 그 유형을 달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¹⁾. 즉 노인의 여가라 함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

10) 사회의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 경우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5%를 넘을 경우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통계청, 전게서, p.6.

령기에 있어서도 일정한 사회적, 가정적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추구하는 도중에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할이 없어서 막연하게 긴 시간을 말 한다¹²⁾. 특히 우리나라는 조기 정년제도로 인해 50대 중반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을 만들고 있고, 평균수명이 연장으로 인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되었는데 반해 오늘날 노인들은 여가투성이의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여가 자체가 즐거움 이라기보다는 무로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노인들에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경우는 생활 그 자체가 여가인 만큼 긴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인 개인의 건강은 물론 생활의 충실감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 여가활동은 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인들은 개인단위로 무로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노인들의 문화 및 여가의향’에 대한 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 활동은 주로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등에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여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 의향

구 분	60세 이상	TV시청 라디오	여행	바둑 화투	운동	독서 영화	사회 봉사	사교 관련	가족과 하는일	기타
전체	100.0	60.6	9.4	2.8	4.5	1.9	1.4	13.5	4.6	1.2
남자	100.0	57.8	12.8	12.8	5.7	2.5	1.3	11.0	3.9	0.5
여자	100.0	62.6	62.6	6.9	3.6	1.5	1.5	15.4	5.2	1.7
60~64세	100.0	56.1	56.1	13.3	6.0	2.2	2.2	11.5	4.5	1.0
65~69세	100.0	59.1	59.1	10.5	5.2	1.7	1.5	13.8	4.4	1.1
70~79세	100.0	63.7	63.7	6.0	3.1	2.0	0.7	16.1	4.5	1.3
80세이상	100.0	72.3	72.3	1.8	1.0	1.2	0.4	11.8	6.5	12.5

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1)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7, p.265.

12) 김동배, “미래사회와 노인여가 활동”,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p.51.

여가활동에는 휴식적인 것, 교양·취미에 관한 것, 스포츠와 야외활동, 사교와 사회봉사활동, 관광여행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관광은 그 시간적 길이 나 사람들의 기대를 자극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¹³⁾. 또한 관광은 노인들에게 관광은 삶의 질 제고의 효과를, 사회적으로는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여가대책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⁴⁾.

첫째, 오늘날 노인은 예전과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그동안 일에 묶여 자기의사로 거주지를 떠나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의 욕구가 크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회주변과의 접촉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넷째, 여가를 통한 자기발견, 자기계발, 인생의 의미성찰에 있어 거주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관광의 경험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노인층 관광시장의 문제점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관광정책의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노인관광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광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예산편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노인관광정책을 수립하지 못하

13) 김진섭, 『관광학원론』, 대왕사, 2004, p71.

14) 이종문, 「복지관광의 이해」 일신사, 1999, p 229.

15) 조구현, “노인복지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정책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3, p.41.

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사회복지측면에서 노인을 위한 관광지 개발이나 저렴한 숙박시설, 휴가촌 시설 등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관광객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노인관광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관광에 대한 정책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관광구조 중 노인관광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 세제상의 보완책 등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인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관광정책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사회단체, 종교단체, 언론 및 학교 교육 등에서도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도외시되고 있다.

다섯째, 관광법규상에 노인관광의 진흥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다만 관광기본법의 국민관광 및 국민복지의 향상이란 표현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고 더욱이 관광기본법의 정신이 구체화된 관광진흥법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여섯째, 노인관광객들에게 맞는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 번째, 관광지에서의 노인관광객에 대한 요금할인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관광객이 교통수단 및 관광지, 국·도립공원, 박물관, 위락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인관광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덟 번째, 여행비용 지원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정책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행 비용지원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관광 지원방법을 개발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국내·외노인 관광제약 속성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는 노인층을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인식하여 관광 참여 요인 및 비 참여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및 제약요인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 관광 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노인들이 인지하는 관광제약요인으로 경제적·신체적 요인을 가장 두드러진 제약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노인을 대상으로 관광제약요인을 분석한 연구한 Fleischer와 Pizam¹⁶⁾은 수입과 건강상태가 관광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대에 따라 휴가기간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zey¹⁷⁾는 노인의 관광프로그램 참여 제약요인으로서 비용부족, 건강상태, 동반자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Anderson과 Langmeyer¹⁸⁾은 50세 이하와 50세 이상의 노인관광객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50세 이상의 노인관광객은 여행사가 주관하는 한가로운 일정이 단체 패키지 관광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반면, 비교적 젊은 50대의 고소득 노인관광객은 개인단위의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관광객의 주된 여행 동기는 휴식, 기분전환, 친척방문을 통한 소속감 등이었으며 여행목적지로 역사유적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국내 연구를 보면 도시노인의 관광인식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대다수(81.0%)가 관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로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 견문확대, 친목도모 등을 두었다. 또한 관광 제약요인으로는 비용부족, 건강문제, 동반자 부재 등이고 관광 참여시 불편사항으로는 교통 혼잡 및 교통체증 등이 추출되었다¹⁹⁾.

그리고 노인복지관광 활성화방안²⁰⁾에서 노인관광의 제약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적 요인을 제약으로 강하게 인지할수록 관광자체에 관한 흥미·의욕을 상실하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수단,

16) Fleischer, A. & Pizam, A.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9, 1,2002. p.106-123.

17) Michael A. Blazey, "The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a Senior Travel Progra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6, No.1, 1987, p.87-95.

18) Beverlee B. Anderson and Lynn Langmeyer, "The Under-50 Travelers : A Profile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 Spring,1991, pp.20-24.

19) 김진탁, "도시노인이 여가활동 성향과 관광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1996, p. 81-122.

20) 김 현,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정책, 2003, p.4.

동반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를 제약요인으로 강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변의 관광시설 부족에 대해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거리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이로 인해 이동이 적은 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적 장애가 클수록 관광지에서의 혼잡도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제적 요인을 제약으로 인지할수록 관광자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관광참여를 포기하거나 비용, 동반자, 관광시설 및 관광거리 등 비교적 비용과 관계된 요인들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관광참여에 있어 비용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노인의 관광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인 중 신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중요요인으로 도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광지 개념과 분류

1) 관광지의 개념

포괄적 의미의 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곳을 말한다²¹⁾.

즉, 관광지는 여행자가 일상 생활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동안 체재하는 지역으로서, 자연 관광자원, 인문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시설 자원 가운데 어느 한가지의 매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관광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

21) 박선희,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2002, pp.42-43.

지는 일정한 지역공간을 지칭한다. 단, 관광지는 지역전체가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과 동일하나 모든 관광자원이 일정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자원과 구분되며 관광지도 관광자원의 범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지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관광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관광목적지는 관광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관광지는 주로 관광지의 구성요소 및 공간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광목적지는 물리적 또는 추상적인 관광지가 여행자에 의해 선호, 선택, 이용 및 회상 등 객체로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²²⁾.

관광지의 요인으로는 관광자원, 편의시설, 외부교통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관광자원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매력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매력은 해변(나이아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년 등)과 동물보호구역등을 말할 수 있고 인위적인 매력은 역사적이거나 건축학적인 건물로 말할 수 있는데 성공적인 관광객 목적지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관광목적지가 된다. 둘째로 편의시설은 관광지의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셋째로, 외부교통 요인은 모험가들에게는 오지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여행을 즐기므로 이들에게는 많은 외부교통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나, 휴양을 즐기러온 관광객들에게는 충분한 외부교통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외부교통시설은 이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외부교통시설을 해야 한다²³⁾.

관광목적지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복합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호 및 이용은 관광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기도나 수요량은 등락하게 되며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관광지는 대체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간적·정태적 개념이 강한 반면에, 관광목적지는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시간적·동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2) 오상훈, “관광자의 성격과 관광목적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2, pp.56-57.

23) J. Christopher Holloway, Macdonald and Evans, The Business of Tourism, 1986, p9~11.

우리가 해외여행을 위해서 어느 특정 관광지를 선택하게 될 때 그곳이 바로 관광목적지가 되며, 현실적으로 우리의 해외 여행행태는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단일의 관광지만을 관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광지를 묶어서 여행 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상품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관광지의 분류²⁴⁾

관광지는 관광지가 가지는 입지 특성과 유인되어 방문하게 되는 여행자의 동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1) 입지 특성에 따른 분류

관광지는 자원이 보유한 속성으로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입지 속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산악형, 해양형, 도심형으로 구분된다.

(가) 산악형 관광지

산악형 관광지는 산림, 호수, 산악 등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등반활동, 하이킹, 산보나 산책 등의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나) 해양형 관광지

해양형 관광지는 해변, 모래사장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일광욕, 수영, 파도타기, 낚시 등의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다) 도심형 관광지

도심형 관광지는 그 위치상 도시기능을 가지고 사업이나 상용, 쇼핑에 관련된 효익을 제공하는 지역이 된다.

(2) 여행자의 욕구나 동기에 따른 분류

관광지는 여행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효익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고되는 효익에 따라 관광지를 세분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여행자의 동기

24) 이환태, “관광유형별 해외관광지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p7~9. 재인용.

에 따라 관광지를 세분하여 보면 위락, 문화, 종교, 자연, 보양, 생태 관광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위락 관광지

위락관광지는 여행자의 위락동기를 충족시켜주는 위락적 효익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를 말한다. 이러한 위락 동기는 일상생활에서의 탈출, 즐거움 추구라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나) 문화 관광지

문화 관광지는 여행자의 문화적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적 효익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가 된다. 이러한 문화적 관광지는 역사적 유산이나 유적으로 문화적, 교육적 동기에 유인되는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된다.

관광지의 문화적 특성이 크면 클수록 관광객을 유인하는 힘은 커지게 마련이나 관광지가 성장 발전하면서 관광객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관광지의 문화적 특성은 쉽게 사라지게 된다. 관광지가 문화적 특성을 잃는다는 것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 관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²⁵⁾.

(다) 종교 관광지

종교 관광지는 여행자의 종교적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적 효익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로 순례여행, 성지 참배 등의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라) 자연 관광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는 비이동성, 계절성, 다양성, 변동성의 특성을 갖고 있고 경관미, 자연미, 자연의 신비, 특이함으로 심신의 휴식, 자연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 자연감상 기능 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 생태 관광지

생태관광은 자연관광의 한 형태로서 생물다양성, 야생동식물, 그리고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의 보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며 생태관광과 자연관광은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관광목적지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자연관광은 지속가능성 원칙을 내포하지 않고 생태관광은 내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25) 최병길, "제주관광의 정체성 변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2000, p.152.

다르다. 생태관광은 생태계 우수 지역의 자연 및 관련 문화 자원을 관찰, 감상, 이해, 체험 등이 발생하게 된다²⁶⁾.

(바) 보양 관광지

보양 관광지는 여행자의 일탈, 신체적 편안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보양의 효익을 갖추고 있는 관광지로 인간의 신체적 안정, 보양 욕구가 주가 되는 온천, 산림욕의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2. 관광지 선택행동 요인

1)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행동

일반적으로 상품의 구매과정은 문제의 인식, 정보의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의사결정, 구매 후 행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²⁷⁾.

복잡한 의사결정은 즉 고물입 제품은 관여수준이 높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으로 포괄적 문제해결을 말한다²⁸⁾.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제품은 보통 고가품이거나 의약품과 자동차와 같은 제품 등인데 관광상품도 무형성의 특성으로 인해 가령 여행상품, 항공권예약, 혹은 호텔 예약 등은 적극적인 탐색을 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고물입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여기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이 반드시 이러한 5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인 구매시 어느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제인식의 원천은 개인의 특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한 가구당 수입 혹은 임의적 가처분 소득, 가정생활주기, 여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사회계층과의

26)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2002, p5~6.

27) P. Kotler,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ication and Control*, 6th, Prentice-Hall, 1988, p.194.

28) 이학식의 2인 「소비자 행동」, 법문사, 2003, p.122~123.

29) 21C 호텔관광연구회, 「관광마케팅」, 학문사, 2002, p.136.

비교, 여행을 함으로써 지위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느낌, 여행준비 및 추억을 주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관광 의사결정과정은 관광의 시간적 공간적 이용대상이 되고, 비 이동성으로 인해 그 내용면에서 유형의 제품과는 다소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행은 개인의 욕구충족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며 우리가 맞고 있는 대량 관광시대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관광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관광은 한 가정의 가계 예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비용(expenditure)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은 대체로 임의적 가치분 소득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지출계획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획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광목적지(destination), 여행의 부류(types of vacation), 기간(duration) 여행의 형태(model of travel)와 경비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관광행동단계를 설명하는 구조(framework)의 한 단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Engel과 Blackwell의 소비자 행동이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의사결정모델의 대표적 모델인 EBK(Engle-Blackwell-Kellat)모델의 의사결정과정은 5단계로 구분되며 이 5단계는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탐색(information acquisition), 대안의 평가(alternatives evaluation), 선택(selection of an alternatives), 그리고 결과 및 평가(post-choice experiences)의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즉 소비자는 내부적 자극(생리적 신호인 배고픔이나 목마름 등)이나 외부적 자극(마케팅자극과 환경적 영향)을 처리한 결과, 현재의 실제적인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차이가 충분히 크다고 자각한다면 욕구가 인식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작 된다³⁰⁾.

그러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동기부여는 이상적 상태와 실제적 상태의 괴리의 크기(magnitude of the discrepancy)와 문제의 중요성에 달려있

30) 김정희, “소비자 가치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995, p36, 재인용; J. F. Engel and R. D. Blackwell, *Consumer Behavior*(4th edition), Heinsdale: The Dryden Press, 1982, p.300.

다. 즉 두 가지 상태에 대한 지각사이의 괴리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커야 소비자로 하여금 결정과정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시간과 예산제약을 받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³¹⁾. 또한 EBK 모델에서 태도란 소비자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상표를 평가하여 선택하는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 제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자극, 즉 동기를 활성화 시키는 요소와 목표 지향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구매행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³²⁾.

마케팅 분야에서 제안되어 온 소비자행동이론들을 검토해 보면 그들은 대체로 첫째, 소비자에게 어떠한 요인이 에너지를 환기시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가, 둘째,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행동이론과 유사한 관광지 선택행동을 Van Raaij와 Frariancken³³⁾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일반적(여행가부) 의사결정
- ② 정보의 탐색 (generic decision or generic expenditure)
- ③ 의사결정 (information acquisition, information sources and mia)
- ④ 관광활동 (vacation activities)
- ⑤ 소비자 만족/불만족 (satisfaction and compla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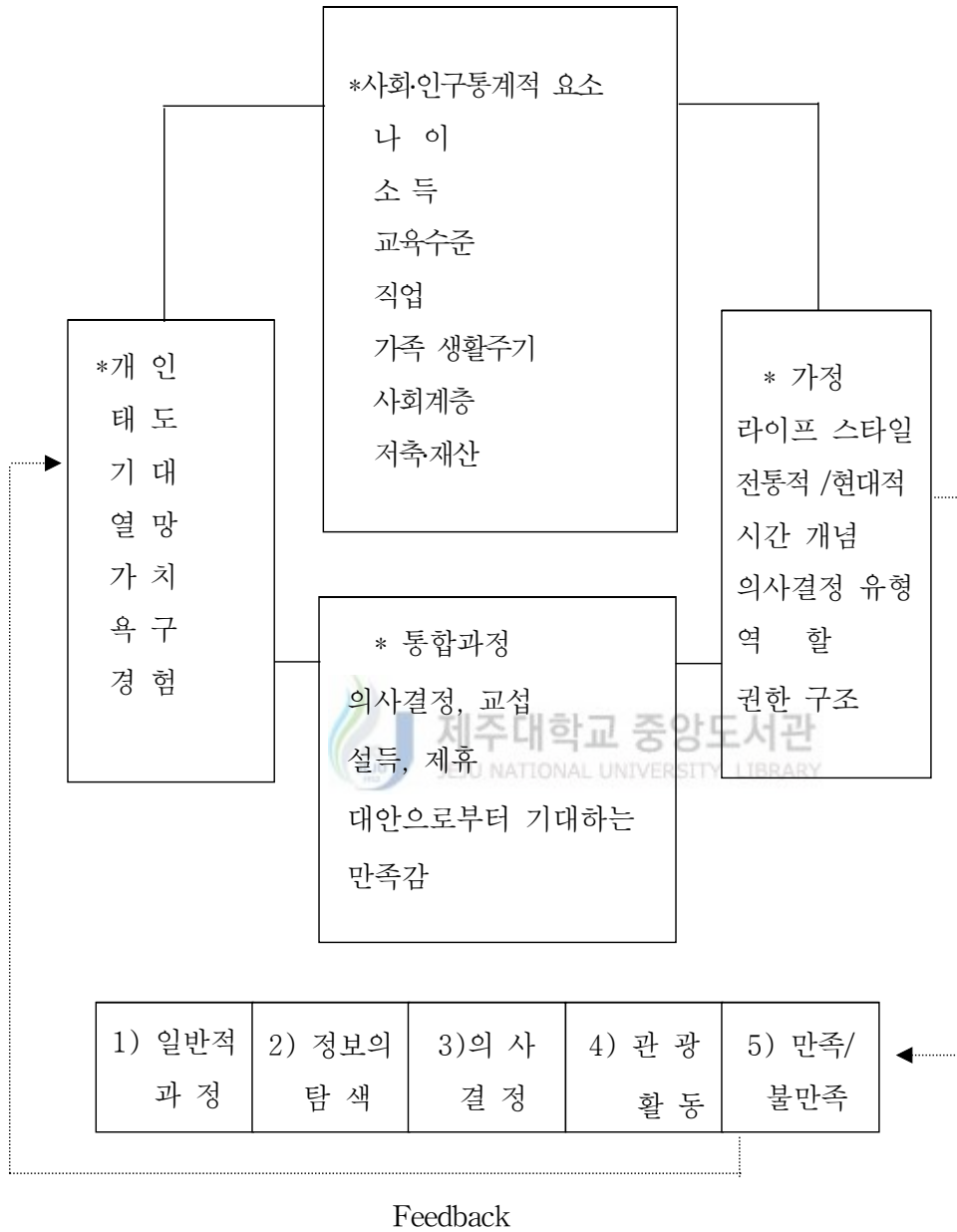
이러한 관광지 선택행동 과정은 개인적·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림 2-1>은 개인적 요소, 사회·인구통계적 요소 및 가계적 요소가 행동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성격 및 가정적 특징은 설득·교섭 등의 의사결정통합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과정의 결과는 관광목적지 선택행동 각 과정마다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특히 3단계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이에주, “관광지 선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88, p26, 재인용; Del I. Hawkins, Kenneth A. Coney, and Roger J. Bost, *Consumer Behavior*, Business Publication, Inc., Dallas, 1980, p.388.

32) 상계서; D. T. Kollat, R. D. Blankwell and J. F. Engel (eds),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33) 상계서; W. F. Van Raaij and D. A. Fariancken, “Vacation Decisions, Activities and Satisfac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4, pp.101-122.

<그림 2-1> 관광지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료: W. F. Van Raaij and G. Eilander, "Consumer Economizing Tactics for Ten product Categor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0, 1983, p.169

(1) 일반적 의사결정

일반적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관광을 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의 의식 단계이다.

여행과 관련된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으로 결집된 이동과 체재활동이 관광활동이며, 관광활동을 이루는 개개의 행위가 관광행동이다. 관광행동을 하기 전에 앞서 대상지, 대상행위, 여행시기, 동행자, 이동수단, 여행경비, 체재기간, 숙박장소, 식사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선택한다. 문제의 의식은 소비자가 실제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할 때 발생한다. 소비자가 문제해결이 긴박성이나 그 문제가 기대되었던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계획적 문제, 긴급을 요하는 문제, 그리고 진화적 문제로 나누기도 한다.³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routine problems)는 실제적 상태와 추구된 상태간의 차이에서 예기되며 또한 즉각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이고, 식료품이나 편의품 등이 이 유형과 관련된다.

계획적 문제(planning problems)는 문제의 발생이 예기되나 즉각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 수명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 미리 그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계획을 세우는 경우이다.

긴급을 요하는 문제(emergency problems)는 예기되지는 않았으면서도 즉각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진화적 문제(evolution problems)는 기대되지도 않고 즉시 해결이 요청되지도 않는 문제이나, 추구된 상태와 실제적 상태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갭이 점차 심화될 때, 새롭고 더 패션화된 것을 구매하려는 경향이다.

문제가 인식되면 그 문제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문제해결행동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로, 이는 소비자의 추구상태와 실제상태간의 차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유발할 만큼 크지 못할 때, 또는 시간적 제약이나 사회계급의 가치, 가족 구성원간 의견의 불일치 등이 요인이 될 때 발생한다. Best와 Anderesen³⁵⁾은 노년층 소비자가 저수입 상태에 의한 저구매력

34) 최병룡, 「최신 소비자 행동론」, 1996.법문사, p.524.

으로 인하여 문제의 인식이 적게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Spoles³⁶⁾는 의류 분야에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의류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관광분야에서도 고령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보탐색과정

소비자가 문제가 의식되면 다음 단계가 각종 정보의 수집이다. 즉 관광을 할 것으로 결정하면 소비자는 행동대안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탐색과정에 들어간다.

정보의 탐색은 보통 관광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인데, 여기에는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적인 탐색과 외적인 탐색이 포함된다.

내적인 탐색이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내적인 탐색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소비자는 구매과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외적 탐색을 하게 된다. 외적탐색이란 자기의 기억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기의 기억 이외의 원천이란 첫째로, 개인적인 정보원천으로서 여기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아는 사람 등이 있겠고 둘째로, 상업기관으로 광고나, 판매원, 대리점등이 있다. 셋째로, 공공기관으로 여기에는 대중매체나 소비자보호기관이 있겠고 넷째로, 소비자 자신의 경험으로서 시승이나, 시음, 제품의 검사 등이 있다³⁷⁾.

이러한 정보원의 영향은 제품유형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업적 원천으로부터 대다수의 정보를 얻고 있다. 광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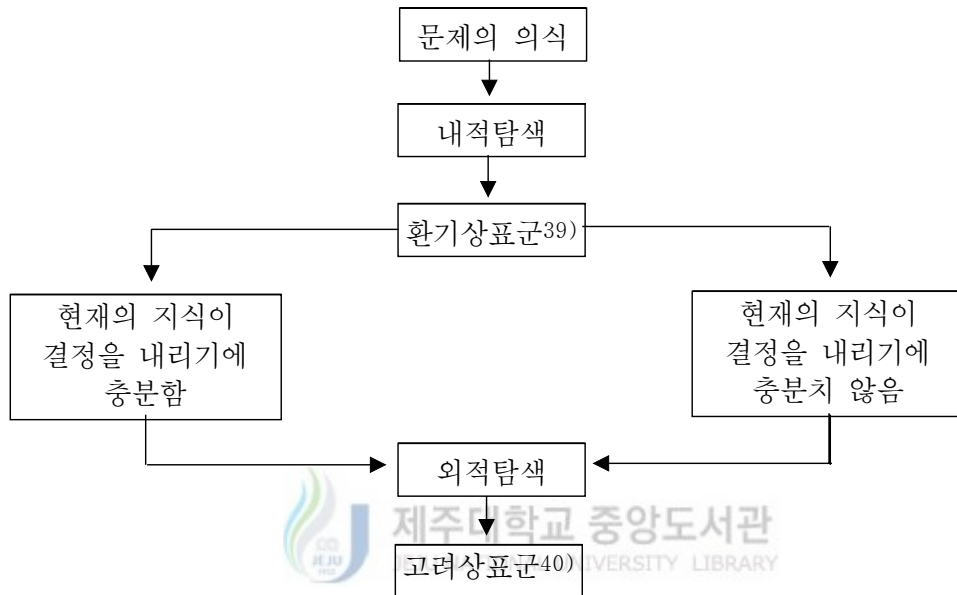
35) 신현웅, “문화·스포츠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p 15 재인용.;A. Best and A. Andreasen, “Consumer Complain dose Business Respond”, *Havard Business Review*, 1977, pp. 93-101.

36) 김정희, 전계서, p39.;George B. Spoless, *Fashion-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 Bugress Publishing Co., 1979, p.203

37) 유필화 외2인, 「현대마케팅론」, 박영사, 2002, p.45~47.

필요한 이유는 바로 광고의 지속성이 광고기간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유효한 정보는 개인적 정보원에서 얻는 경향이 있다. 관광지에 대해서 NTO가 실시한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³⁸⁾.

<그림 2-2> 내적탐색과 외적탐색의 관계



자료: 유필화 외2인, 「현대마케팅론」, 박영사, 2002.

관광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정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 정보는 여행에 대한 기대감 및 환상과 함께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지도록 한다.

둘째, 정보는 여행을 원하지 않는 가족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38) 김정희 전게서, p40.; Peter Hodgson, "New Tourism Product Development-Market Research's Role," *Tourism Management*, Vol. 11, No. 1, March 1990, p.2.

39) 소비자가 내적 탐색의 방법으로 정보를 탐색할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표들을 환기상표군이라 한다.

40) 소비자가 외적탐색을 하는 경우 외적탐색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상표와 환기상표군을 합하여 고려상표군이라고 한다.

제공한다.

셋째,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보는 관광목적지를 선택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정보는 여행결정을 합리와 내지 정당화시킨다.

끝으로 정보는 여행 후 인지적 불일치(cognitive dissonance)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Jenkins⁴¹⁾는 개인에 따라 정보탐색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지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를 가장 많이 탐색하는 집단은 35세에서 55세의 여성으로 중상류층 이라고 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가정은 관광지를 결정하고 난 후 숙소를 결정하며, 50% 이상이 1달 내지 3달의 계획기간을 소요하며, 35%는 3달에서 1년 정도에서 그리고 15%는 일주일 이내(충동적 구매)에 구매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개인에 따라 정보탐색행동(information search behavior)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를 가장 많이 탐색하는 집단(information seeker)은 35세에서 55세에 이르는 여성으로서 중상류의 사회지위계층으로 나타났다.

Lumpkin⁴²⁾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소비자는 젊은 연령층보다 신뢰할만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ennett과 Mandell⁴³⁾은 65세 이상의 소비자는 대체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정도가 높으므로 정보탐색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은 노년층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친구, 연고자, 판매원들이 모두 노년층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

41) 김정희, 전계서, p40.; R. L. Jenkins, "Family Vacation Decision-Mark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6, No. 4, 1978, p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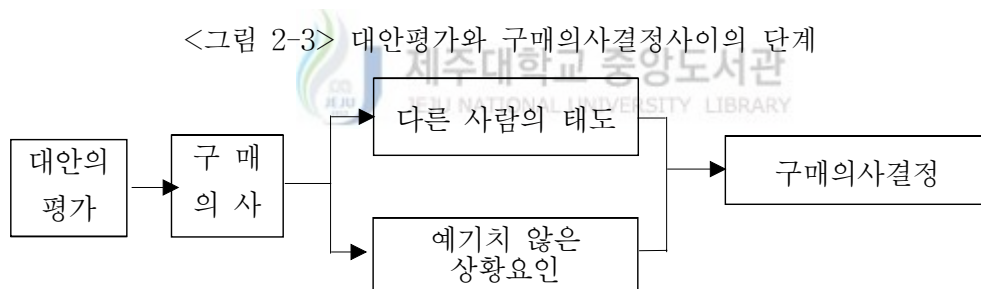
42) 김지영, "실버고객의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0. p.17, 재인용.; J. R. Lumpkin, B. A. Greenberg and J. L. Goldstrcker, *op. cit.*, pp.75-105.

43) 상계서.; Peter D. Bennett and Robert M. Mandell, "Prepurchas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ew Car Purchasers : The Learning Hypothe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6, 1969, p.431.

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⁴⁾. 그리고 연령자체 보다는 사회집단이 노년층 소비자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간계층의 소비자들이 하위계층의 소비자들보다 정보수집의 양과 질에서 우월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인적 정보원천에 더욱 의존한다고 한다⁴⁵⁾.

(3) 의사결정

구매의도가 형성된 소비자는 대안 평가 단계에서 선호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그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관광지)을 구매(선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매의도가 형성되어도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장애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타인의 구매의도와 둘째 상황적 영향의 두 가지 주요 결정함수에 의해 이루어진다⁴⁶⁾. 즉 구매의도와 구매의사결정 사이에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준거집단과 같은 다른 사람의 의도의 개입이나 예기치 않았던 상황요인이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3>과 같다.



자료: 김진섭, 「관광마케팅」, 대왕사, 2004, p.120

그리고 관광행동의 결정요인에는 크게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3가지로 나눌수 있다.

44) 김지영, 전게서,;L. G. Schiffman, "Souece of Information for the Elerl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1, 1971, pp.33-37.

45) 신현웅, 전게서, p.16,;R. B. Smith,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Source on Brand Loyally and Consumer Sex Roles of the Elderl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8, 1991, pp. 673-678.

46) 상게서,;P. Kotler, *op. cit.*, p.147.

첫째로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 등 5가지 요인이 있고 둘째로, 사회적 요인으로 교육수준,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제도적 지위, 종교, 등의 사회계층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임, 종교집단, 스포츠 동우클럽 등의 준거집단, 가족 구성원, 등이 요인이 있고, 셋째로 개인적 요인으로서 여기에는 연령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의 요인이 있다⁴⁷⁾.

여행을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천은 Jenkin⁴⁸⁾은 사회적 원천 중 가족, 친지, 친구의 순으로 영향력을 많이 가지며, 여행사는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Darden과 Perreault⁴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일수록 대중매체, 잡지, 상업적 광고와 많은 접촉을 갖고 있으며, 여행기간이 길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등 혁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관광행동은 정보원천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라이프스타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관광지 선택은 부부와 자녀들 간의 공동의사결정의 성향을 보이는데 문제의 인식단계에서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부부가 각자 따로 정보탐색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공동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Jenkin은 여행기간과 여행에 사용되는 총 경비는 남편이 결정하며, 교통수단, 여행활동, 숙박시설의 선택, 목적지 선택, 자녀동반의 여부는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여행사 광고,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전달 스타일, 교육수준, 여행경험, 가격의 민감도, 관광목적지의 선호도, 속성에 대한 민감도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의 의사결정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광에 대한 이미지는 오랫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형상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형성된 이미지는 관광을 마친 후에 더 고착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도 있다⁵⁰⁾.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보여, 어느 관광객은 여러 대

47) 한영권, 「관광학 개론」 미학사, 2003, p.128~135.

48) 이애주, 전계서, p.31재인용.; R. L. Jenkin, "Family Vacation Decision-Mark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6, No. 4, 1978, pp.2-7.

49) 김정희, 전계서, p.43, 재인용.

50) 최병길, 전계서, p.152.

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며, 어느 관광객은 충동구매로 시간을 아주 적게 보내는 소비자도 있다. 관광객은 흔히 이미지를 근거로 하여 목적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람직한 이미지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마음속에서 관광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관광지 이미지 속성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선호된 관광지와 열세에 놓인 관광지 모두 새로운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McCall⁵¹⁾은 55세 이상의 주부들은 철저하고 정형화된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선택단계에는 인구통계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개성 등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쇼핑과 구매 욕구를 형성하게 되며, 특히 상점,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가 욕구와 유사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⁵²⁾. 그리고 노년층 소비자들은 상점의 선택시 주차의 편리성에 영향을 받으며 집에서 가까울수록, 전화주문이나 가정배달이 용이할수록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⁵³⁾.

(4) 관광활동

관광활동이란 관광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험으로서, 대부분의 관광객은 의사결정과정과 결과에 집착하지만, 실제의 관광활동은 관광지 마케터가 관광상품을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객의 방문회수, 체류기간 등을 포함한 관광활동에 따라 관광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⁵⁴⁾.

- ① 모험형(adventure, 29%) : 탐구적이며, 혁신적 성격의 소유자로 편안함에 신경 쓰지 않는 집단.

51) 신형웅, 전게서, p.17.; Suzanne H. McCall, "Meet the Workwives", *Journal of Marketing*, Vol.41, 1977, pp.55-56.

52) 상계서, p.17.; Kent B. Monroe and J. B. Guitman, "A Path-Analysis Exploration of Retail patronage Influ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1975. p21.

53) 상계서, p.18.; J. R. Lumokin, B. A. Greenberg and L. L. Goldstrucker, *op. cit.*, pp.75-105.

54) 김정희, 전게서, p.44.; W. Meyer, Aktivitat im Urlaub. in Fortschritte der Marktppsychologie, K. D. Hartmann and K. F. Kiepler, eds., 1977, pp.259-291.

- ② 경험형(experience, 15%) : 로맨틱한 분위기,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나 모험은 즐기지 않는 집단.
- ③ 순응형(conformity, 13%) : 가정에서의 생활스타일과 별 차이가 없는 관광패턴을 갖고 있는 집단.
- ④ 교육형(education, 12%) : 문화, 건축양식, 역사, 현지의 언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
- ⑤ 건강형(health, 12%) : 휴식 및 휴양으로 바쁜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집단.
- ⑥ 사회형(social contact, 10%) : 사회계층과의 접촉을 갖고 싶은 집단.
- ⑦ 지위 향상형(status, 10%) : 명성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 ①, ②, ④, ⑥은 활동적(active), ⑤는 수동적(passive), ③, ⑦은 개인 및 사회적 규범(personal or social norm)이라는 특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광객 집단별 구성비의 변화를 검토한 Meyer는 최근의 관광추세가 휴양과 휴식으로부터 육체적 활동 및 인지적 활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관광을 통해 관광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휴양 및 휴식을 충족시킨 후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인 사회적 접촉, 새로운 경험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관광활동(vacation activities)보다 포괄적인 관광시장 세분화의 방법은 여행 라이프스타일(vacation lifestyle)을 검토하는 일로서, Darden과 Perreault⁵⁵⁾는 관광시장 세분화 방법으로 관광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라이프스타일이 관광 성격과 매체노출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광활동을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그리고 뿌리 찾기(선조의 고향 방문과 친구 및 친지 방문)로 분류하여, 세분집단의 가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스포츠 활동의 선호는 즐거움 및 흥미와 성취 가치와 관련되며, 야외 활동의 선호는 성취 가치와 그리고 뿌리 찾기 활동은 외부지향 가치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55) 김정희, 전게서,; W. R. Darden and W. D. Jr. Perreault, "A Multivariate Analysis Media Exposure and Vacation Behavior with Life Style Covariat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No.2, 1975, pp.93-103.

(5) 만족과 불만족

제품을 구매한 후 소비자는 그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데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지각된 제품성고가 얼마나 부합했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관광상품도 구매 후 평가 결과 관광객은 만족 혹은 불만을 느끼게 된다. 즉, 구매로부터 만족이 관광객에게 주는 결과는 보다 우호적인 구매 후 태도, 재구매 의도의 증가, 상표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나 불만의 결과는 다른 적합한 대체안의 선택, 사용 중지, 불평해동, 친구나 가족에게 부정적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여행업이나 호텔업의 경우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형적이고, 거래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며, 종사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고객도 함께 참여하므로 고객 만족은 유형적 제품과 관련되기 보다는 무형적 서비스의 연출과정에서 느끼는 고객의 주관적 판단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⁵⁶⁾.

Van Raaij와 Francken⁵⁷⁾는 불공정속성을 불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 하였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관광객보다 외부적 요인 즉(여행사, 호텔, 교통시설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관광객이 여행에 대해 불만족하기 쉽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마케터는 구매후의 소비자들의 만족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소비자가 높은 만족도를 갖도록 만족도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년층 소비자는 젊은층보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상품경험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소비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불평행동이 적으며 불만처리와 고발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구전불평, 소송, 고발, 불평행위, 정보탐색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⁵⁸⁾.

56) 21C 호텔관광연구회, 전게서, p.143~144

57) 김정희, 전게서, p45~46.; W. F. Van Raaij and D. A. Franken,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3, No.3, 1981, pp.337-352.

58) 신형웅, 전게서, p. 18.; W. O. Bearden and J. B. Mason, "Profiling the Shopping Behavior of Elderly Consumers", *The Gerontologist*, Vol. 18, 1978, pp.454-461.

2)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요인

관광지는 어떤 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완성된 관광상품 으로서, 이에 대한 지각과 선호는 물론 선택도 관광자의 특성에 따라 변하게 되며 관광지에 대한 투입변수 및 각 의사결정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광자의 입장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관광자의 경험이나 특성 관광지까지의 소요시간, 여행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관광지 선택속성에 대해서 Clawson 과 Knetsch는 관광지 고유의 매력도, 관광지의 개발상태와 경영성격, 주변에 대안관광지의 존재유무와 경쟁력 수준, 수용능력, 대안관광지의 기후, 날씨 등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자의 속성으로는 관광지까지의 거리 및 접근성, 관광소요비용 및 관광자의 생활주거지와 대안관광지와의 화폐가치, 공간이동의 쾌적성을 들고 있으며⁵⁹⁾, Var 등은 관광속성을 자연적 요소, 사회적 요소, 역사적 요소, 오락 및 쇼핑시설, 부대시설 및 숙박시설과 음식 등 주요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17개의 하위특성에 대해 관광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자연경관, 부대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을 관광자에게 매력을 주는 속성으로 평가되었다⁶⁰⁾.

Um과 Crompton도 관광지 선택요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선호도를 연구하였는데, 첫째로 욕구만족차원으로서 여기에는 관광지의 기후, 즐거움, 다양성, 행복감, 특별한 야외오락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도전성, 휴식, 매력적인 자연환경 등이 있고, 둘째로 사회적인 차원, 셋째로는 여행능력차원으로서 금전, 건강, 시간,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지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⁶¹⁾

이들 연구 이외에 국내 연구를 보면 위락관광지 선택연구에서 관광선택 요인을 보면 크게 귀속에, 새로운 경험, 경제적 기분전환, 교육활동 등으로 나누고

59) Clawson, M. & Jack Knetsch, *Economic of Outdoor Recreation*, The John Hopking, 1976.

60) Var, T. R. D. Beck & P. Loftus, " Determination of Touristic Attractiveness of The Touristic Areas ; British Columbia, "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5, 1977, p. 23-29.

61) Um, S. H. & John L. Crompton, "Attitsde Determinants in Tourism Destination Choce," *Annals of Tourism of Tourism Research*, Vol. 17, 1990, p.432~448.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요인으로는 추억(향수), 소속집단과의 우이(사랑), 특별한 음식, 쇼핑, 특별한 놀이 활동, 아름다운 경관 감상, 이색적인 동·식물, 경제적 위락활동, 쾌적한 위락장소, 체험을 통한 산교육의 효과, 용이한 도달 등 11개 속성을 제시하고 있고⁶²⁾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광지 선택 요인을 크게 자연경관에 의한 속성, 사회 및 문화적 속성, 인위적 속성으로 크게 분류하여 스포츠시설, 수상 스포츠 시설, 쇼핑시설, 식음료시설, 오락시설, 숙박 시설, 역사·문화적 흥미거리, 자연경관, 주민의 친절성, 휴양과 휴식시설 등의 10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10개의 관광지 선택요인을 바탕으로 관광자가 지각하는 현저한 관광지 속성 및 가장 선호하는 속성의 결합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관광시장 내에 존재하는 관광지간의 경쟁관계를 연구하였다⁶³⁾.

그리고 관광유형별 해외 관광지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광지 선택요인으로 독특한 자연경관, 스포츠 및 부대시설, 음식 및 숙박시설, 쾌적한 위락시설, 쇼핑시설, 역사, 문화, 흥미거리, 지역주민의 친절, 관광지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여행비용, 과거의 여행경험 및 지식 등을 선택요인을 선택하여 여행자의 해외 관광지 선택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과 그 요인들이 해외 관광지 선택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과 그 요인들이 해외 관광지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관광유형별 해외 관광지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관광후의 만족도를 비교·분석 하였다⁶⁴⁾.

관광지 선택요인을 크게 첫째, 자연에서 주어진 요인으로 자연경관, 기후, 태양 및 해변, 그 지역의 특수 동물군과 특수 식물군 둘째, 사회 및 문화적 요인으로 역사물, 건축양식, 예술 및 음악, 언어,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의 태도 셋째, 인위적 속성으로 숙박시설, 오락, 음식, 교통, 스포츠시설, 쇼핑시설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관광지 선택요인으로 자원의 매력도, 관광지 이동시간,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 관광경비, 관광시기 6개의 요인의 채택되었다.

62) 김원인, "위락관광지 선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63) 이애주, 전게서.

64) 이환태, 전게서.

(1) 대상관광지 매력도

대상지 매력도란 관광지의 관광자원을 말하는데 관광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들을 말한다. 관광자원의 분류를 보면 크게 자연적 관광자원과 인문적 관광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관광자원을 또 분류하면 관상적 관광자원(지형, 지질, 생물, 기상), 체재적 관광자원(기후, 광천, 지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문적 관광자원을 다시 분류하면(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위락적 관광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⁶⁵⁾.

(2) 관광지 이동시간

관광자의 거주지에서 관광지까지의 여행거리 및 소요시간에 근거한 개념으로 관광자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며 관광지 선택에 대한 일반적 심리변화를 보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광자의 위락적 동인이 크게 작용하게 되고, 거리가 멀수록 문화적 동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거리가 멀수록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용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거리에 따라 효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반 관광객들과는 달리 노인 관광객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크므로 관광지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이 된다.

(3) 동반자 유무

앞에서도 논의 했듯이 노인은 사회적 위치로서, 가정의 중심적 역할 등에서 밀려나는 시점이고 또 노인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싫어하고 사회주변과의 접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관광지 선택시 동반자 유무에 따라서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65) 김경호 외1인, 「관광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3, p.100~110.

(4) 건강상태

일반 관광객들과는 달리 노인층 관광객들은 건강을 중요시 하고 있고,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서 관광자체에 흥미·의욕을 상실하고 계획 했던 여행도 신체적인 제약으로 여행을 아예 포기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멀리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지 않고 근접한 관광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도 관광지 선택 요인이 된다.

(5) 관광경비

비용은 거리나 건강과 같이 관광자의 관광지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비용에 따라서 관광지 선택시 이상적인 관광지를 유사한 형태의 관광지로 대체하는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인층 관광객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경비는 관광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6) 관광시기



관광시기(계절)은 관광지의 행사, 기후나 날씨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언제 관광을 떠날 것 인가는 관광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 3 절 제주지역 관광객 현황

1. 제주지역 관광객 유형별 현황

연구지역인 제주지역의 관광객 추이는 다음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다. 2003년도 전반기에는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국외로는 이라크전이 전개되면서 테러에 대한 불안심리 작용으로 동남아시아의 회교국 여행을 기피하게 되었고, 저렴한 비용의 해외여행지로 부각되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사스'와 조류독감 발생 등과 같은 악재가 작용되면서 이 지역여행을 계획했던 수요가 제주관광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3>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단위 : 천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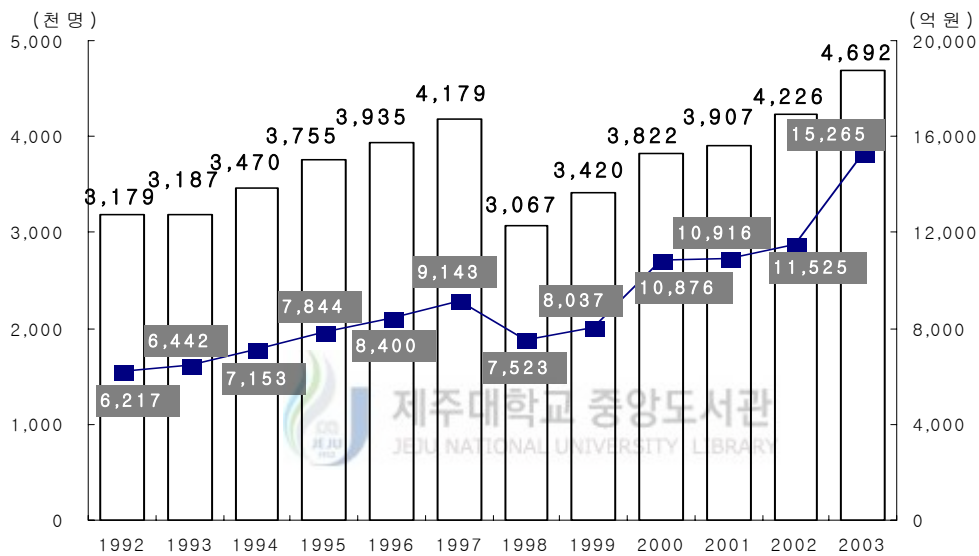
연도별	구분	관광객 수		관광수입	
		내국인	변화율	내국인	변화율
1992		3,179	-	621,666	-
1993		3,187	0.2	644,226	6.8
1994		3,470	8.9	715,262	4.4
1995		3,755	8.2	784,431	10.3
1996		3,935	4.8	839,980	3.7
1997		4,179	6.2	914,261	5.6
1998		3,067	-26.6	752,310	-7.1
1999		3,420	11.5	803,706	7.7
2000		3,822	11.8	1,087,674	45.4
2001		3,907	2.2	1,091,652	-0.1
2002		4,226	8.2	1,152,503	2.0
2003		4,692	11.0	1,526,556	4.2

자료 : 제주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이러한 국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년대비 제주지역의 관광객수는 11%정도로 성장하였으며 관광수입 또한 15% 성장하였다.

다음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이후 300만명의 제주관광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다가 1998년 IMF로 인하여 주춤하였지만 꾸준히 성장하여 2003년에는 469만명을 돌파하였다. 관광수입도 1992년에 6천억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2003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초과하였다.

<그림 2-4>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2003년부터 제주지역 관광객 성장에 따른 입도현황 집계유목이 변경되면서 2003년 자료를 전년도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2년까지의 관광객 유형별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 <표 2-4>과 <그림 2-5>과 같다.

제주지역 관광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단체 여행객은 72만여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비중이 8% 감소하면서 1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여행객은 38만여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비중이 8.4%에 9.1%로 7% 증가하면서 1998년 IMF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신혼여행객은 12만여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비중이 1.8% 감소하였고, '98년

IMF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족여행객은 231만여명으로 2001년도에 비해 비중이 8% 증가하였고, 2000년부터 54%대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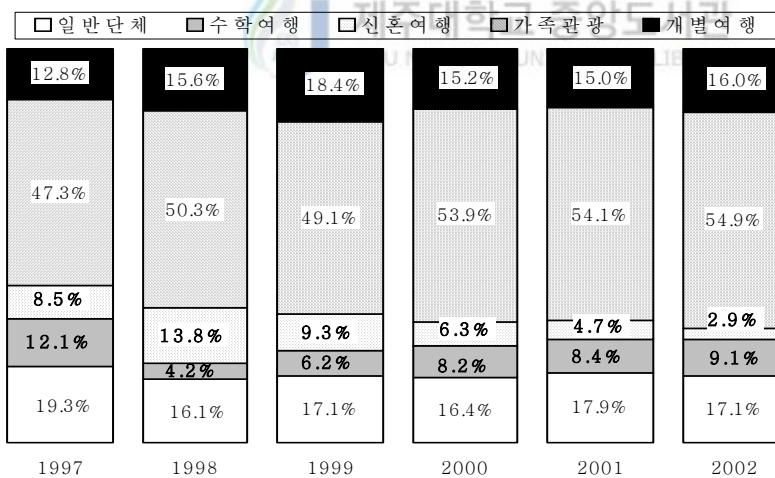
개별여행객은 전년도에 비해 비중이 10%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제주 지역의 관광객은 가족관광객이 54%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관광객 방문목적별 내국인 입도 현황⁶⁶⁾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계(명)		4,178,789	3,067,415	3,419,871	3,822,509	3,907,524	4,226,019
내 국 인	일반단체	807,313	493,254	584,116	627,033	698,123	722,218
	수학여행	507,248	128,533	211,259	311,795	326,370	384,635
	신혼여행	355,944	424,038	316,506	240,272	183,480	123,610
	가족관광	1,975,088	1,544,197	1,678,677	2,061,136	2,115,357	2,318,627
	개별여행	533,196	477,393	629,313	582,272	584,194	677,379

자료 : 제주도, 상계서, 2003.

<그림 2-5> 관광객 방문목적별 내국인 입도 현황



자료: 제주도, 상계서, 2003.

66) 2003년부터 관광객 성향에 따른 입도현황 집계유목이 달라짐으로 인해 2003년 통계치는 연도 별에서 추이에서 제외됨.

<그림 2-6>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 관광객 유형별 비중에서 신혼여행객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학여행과 개별관광객이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객 유형별 집계유목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도는 따로 월별로 입도현황을 분석하였다.(<표 2-5> 참조)

<표 2-5> 2003년도 방문목적별 내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

월별	유형	일반단체	수학여행	레저스포츠	회의 및 업무	휴양 및 관광	친지방문	기타	계
	1월	관광객수	81,302	15,244	33,029	25,407	188,011	10,163	20,326
	점유비율	21.8	4.1	8.8	6.8	50.3	2.7	5.4	100
2월	관광객수	51,199	1,511	31,030	34,133	148,943	23,272	4,656	294,784
	점유비율	17.4	0.5	10.5	11.6	50.5	7.9	1.6	100
3월	관광객수	63,769	24,462	9,811	44,148	172,911	4,905	2,452	322,458
	점유비율	19.8	7.6	3.0	13.7	53.6	1.5	0.8	100
4월	관광객수	88,042	88,288	12,190	31,153	238,390	6,772	-	464,835
	점유비율	18.9	19.0	2.6	6.7	51.3	1.5	-	100
5월	관광객수	132,879	99,202	12,493	7,950	236,224	9,086	4,543	502,374
	점유비율	26.4	19.7	2.5	1.6	47.0	1.8	0.9	100
6월	관광객수	87,690	59,535	13,286	13,286	186,009	6,643	-	366,449
	점유비율	23.9	16.2	3.6	3.6	50.8	1.8	0.9	100
7월	관광객수	83,604	17,584	23,360	13,524	255,732	17,213	3,688	414,705
	점유비율	20.2	4.2	5.6	3.3	61.7	4.2	0.9	100
8월	관광객수	100,411	9,796	35,996	7,578	411,117	9,473	3,789	578,160
	점유비율	17.4	1.7	6.2	1.3	71.1	1.6	0.7	100
9월	관광객수	65,281	40,578	10,043	18,831	185,799	8,788	1,255	330,575
	점유비율	19.7	12.3	3.0	5.7	56.2	2.7	0.4	100
10월	관광객수	109,658	36,538	9,138	12,184	228,455	3,046	1,523	400,587
	점유비율	27.4	9.1	2.3	3.0	57.0	0.8	0.4	100
11월	관광객수	97,031	21,569	10,933	16,400	194,061	10,933	1,367	352,294
	점유비율	27.5	6.1	3.1	4.7	55.1	3.1	0.4	100
12월	관광객수	60,412	4,427	9,119	22,797	190,355	2,280	2,280	291,670
	점유비율	20.7	1.5	3.1	7.8	65.3	0.8	0.8	100
계	관광객수	1,021,275	418,819	210,428	247,391	2,636,007	112,574	45,879	4,692,373
평균	점유비율	21.8	8.9	4.5	5.3	56.2	2.4	1.0	100

자료 : 제주도, 상계서, pp.11-12.재인용.

단체관광객은 102만여명으로 2002년도 대비 41.4%증가하였고, 5월에는 13만여명, 10월에는 11여만명으로 봄과 가을 시즌에 집중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객은 42만여명으로 전년대비 8.9%증가하였는데 4월과 5월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단체들이 제주 캠프활동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국동아수영선수권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등 40여개의 전국 규모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많은 학생단체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저스포츠 목적의 관광객 입도는 국내외 정세 및 경제 불안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크게 위축받으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해짐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많이 드는 레저스포츠 매니아들의 여행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하향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겨울철 눈으로 인해 폐장이 많은 육지부 골프장을 피해서 제주지역으로 골프관광을 오는 레저스포츠 매니아들로 인해 1월과 2월의 레저스포츠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이용요금의 인하와 LPGA 투어 개최 등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골프장 인지도 상승으로 제주지역 골프관광객은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름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해 8월의 레저스포츠 관광객도 제주를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회의 및 업무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 수는 25만여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되면서 2월과 3월에 대형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어 회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본격추진,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각종 투자 및 상담을 위한 비즈니스 방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휴양 및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로 7월과 8월의 바캉스 시즌에 제주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2월의 설과 7월의 여름휴가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월별 관광객 수를 보면 이라크전쟁과 사스 등의 여파로 해외여행계획을 취소하여 목적지를 제주도로 우회한 관광객으로 인해 관광특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월의 결혼시즌과 8월의 여름휴가 시즌에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특수도 10월 이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스의 완전퇴치, 태풍매미의 전국 강타, 가계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예전수준을 유지하였다.

1995년~2003년 동안의 월별 입도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와 같이 8월이 11.7%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월(10.3%), 4월(10.0%), 7월(8.7%)순이며 2월(6.2%)은 관광객이 가장 적게 방문하는 달로 나타났다.

<표 2-6> 월별 내국인 관광객 현황 ('95 ~ '03)

(단위: 천명)

연도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1995	309,015	248,172	294,193	414,164	404,674	261,593	297,371	433,186	247,675	284,882	289,603	270,432	3,754,960
1996	332,154	255,543	289,831	404,343	432,876	273,587	346,270	470,740	246,791	314,546	291,659	276,362	3,934,702
1997	361,733	243,606	314,386	439,445	438,805	315,913	360,161	503,535	277,962	349,157	311,675	262,411	4,178,789
1998	281,157	194,960	232,511	291,722	275,935	186,464	269,979	372,353	207,634	240,184	266,325	248,191	3,067,415
1999	286,371	195,905	251,085	318,684	343,281	231,523	295,679	386,552	224,736	306,965	297,396	281,694	3,419,871
2000	300,175	238,121	285,632	364,030	392,843	288,140	348,136	430,787	236,688	321,814	305,400	310,743	3,822,509
2001	287,728	248,787	277,420	371,481	398,717	274,913	351,710	463,994	252,965	323,455	332,417	323,937	3,907,524
2002	321,817	267,312	332,321	438,793	396,251	237,632	378,475	525,457	289,460	383,761	370,192	284,548	4,226,019
2003	373,482	294,784	322,458	464,835	502,374	366,449	414,705	578,160	330,575	400,587	352,294	291,670	4,692,373
구성비 (%)	8.3	6.2	6.6	10.0	10.3	7.0	8.7	11.7	6.5	8.2	8.0	7.6	100.0

자료: 제주발전연구원, 『국내관광시장의 유형별 마케팅 전략수립』 2002, p30.재인용.

계절별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로 살펴보면 여름철(27.4%)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봄철(26.9%), 가을철(22.7%), 그리고 겨울철(2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만명 이상 방문한 성수기(진하게 표시)를 분석해보면 1995년에는 4

개월(1월, 4월, 5월, 8월)이었으나 1996년에는 6개월(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로 늘었으며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에는 9개월로 나타났다.

1998년 IMF 이후 성수기는 1999년 4개월, 2000년 8개월, 2001년 7개월, 2002년 9개월, 2003년 10개월로 증가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제주관광은 평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주지역 관광지 현황

제주도내 관광지 입장요금 현황을 보면 66개소 가운데 노인에게 무료입장을 하는 관광지는 37개소(56%)로 나타났으며 유료 관광지 51개소 중 노인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한 관광지는 20개소, 할인혜택을 50%이상 주는 곳은 14개소, 30%-50%미만의 할인혜택을 주는 곳은 7개소, 30%미만 할인혜택 주는 곳은 1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지 중 9개소 관광지(진하게 표시)가 노인관광객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광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혜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노인관광객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행정지도와 관광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표 2-7> 제주지역 노인 관광객 무료입장시설 현황

관광지	구 분		입 장 요 금								국가 유공자	장애인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노 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교육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국립제주박물관	400	4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기당미술관	300	300	200	200	100	100	무료	무료	330	330	330	330
김녕미로공원	3,000	2,000	1,500	1,000	500	500	1,000	1,0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그린리조트	12,000	10,000	6,000	6,000	5,000	5,000	12,000	10,000	12,000	10,000	12,000	10,000
금릉석굴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도깨비도로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표 계속)

관광지	구 분	입 장 요 금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노 인		국가 유공자	장애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만장굴	2,000	1,200	1,000	600	1,000	6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명도암 관광목장	1,000	1,000	500	500	500	500	1,000	1,000	무료	무료	
목관아지	1,000	700	500	3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목석원	2,000	1,500	1,500	1,000	1,000	700	1,000	1,000	1,000	1,000	
분재예술원	7,000	6,000	5,000	4,000	4,000	3,000	5,000	4,000	3,500	3,500	
비자림	1,500	900	800	450	800	45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별루닝테마파크	24,500	17,100	18,000	17,100	10,000	10,000	14,700	14,700	14,700	14,700	
산굼부리	3,000	2,500	1,500	1,200	1,500	1,200	1,500	1,200	1,500	1,500	
산방산	2,000	1,600	1,000	800	1,000	8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삼성혈	2,500	1,900	1,700	1,100	1,000	600	1,000	700	무료	무료	
서귀포자연휴양림	1,000	800	600	5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서북전시관	500	400	300	2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섭지코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소인국미니월드	6,000	5,000	4,000	3,000	3,000	2,500	3,000	2,500	3,000	3,000	
소인국테마파크	6,000	5,000	4,000	3,000	3,000	2,500	3,000	2,500	3,000	3,000	
소리섬박물관	6,000	4,000	3,000	3,000	3,000	2,000	3,000	3,000	3,000	3,000	
송악산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수월봉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신영영화박물관	6,000	5,000	4,000	3,000	3,000	2,000	3,000	2,000	3,000	3,000	
안덕계곡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야구박물관	1,000	700	500	500	500	400	600	600	무료	무료	
여미지식물원	6,000	4,800	4,500	3,700	3,000	2,400	3,000	2,400	무료	무료	
예울문화원	3,000	2,000	2,000	1,000	2,000	1,000	1,500	1,000	1,500	1,500	
오설록녹차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외돌개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용두암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우도박물관	4,000	3,000	2,000	2,000	2,000	2,000	4,000	3,000	4,000	4,000	
이승만기념관	2,000	1,500	1,500	1,5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이중섭기념관	1,000	700	500	3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익스트림아일랜드	6,000	5,000	5,000	4,500	4,000	3,500	5,000	4,500	6,000	6,000	
일출랜드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2,500	2,000	2,500	2,500	
절물자연휴양림	1,000	800	600	5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정방폭포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정석항공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표 계속)

관광지	구 분		입 장 요 금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노 인		국가 유공자	장애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JAF동물테마파크	12,000	6,000	9,000	5,000	7,000	4,000	6,000	6,000	6,000	6,000
제주민속관광타운	12,000	12,000	7,000	7,000	7,000	7,000	12,000	12,000	12,000	12,000
제주민속박물관	1,000	500	1,000	500	500	3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100	800	500	3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제주민속촌박물관	6,000	4,000	4,000	2,500	2,000	1,500	2,000	1,500	3,000	3,000
제주조각공원	3,000	2,500	2,500	1,500	1,500	1,200	1,500	1,200	3,000	3,000
조광팔타운	10,000	10,000	7,000	7,000	7,000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상절리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천제연	2,500	2,050	1,370	850	1,370	85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천지연	2,000	1,600	1,000	600	1,000	6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초콜릿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추사적거지	500	400	300	2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코끼리랜드	12,000	12,000	12,000	12,000	9,000	9,000	12,000	12,000	12,000	12,000
테디베어박물관	6,000	5,000	5,000	4,000	4,000	3,000	6,000	5,000	6,000	4,000
퍼시픽랜드	10,000	10,000	7,000	7,000	5,000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평화박물관	5,000	4,000	4,000	3,000	3,000	2,000	3,000	2,000	3,000	무료
하멜기념관	1,000	800	500	400	500	4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한라산국립공원	1,600	1,400	600	500	300	25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한라수목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한림공원	5,000	4,000	4,000	3,000	3,000	2,500	3,000	2,500	3,500	3,500
항몽유적지	500	300	300	15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항일기념관	500	400	300	200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해피타운	12,000	12,000	8,000	8,000	8,000	8,000	12,000	12,000	12,000	12,000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관광지별로 노인관광객 입장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요관광지의 입장객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였다.(<표 2-8> 참조)

제주시 지역 주요 관광지 시설에 입장한 관광객 수는 1,910,848명으로서 이중 한라산 국립공원에 입장한 관광객 수가 553,114명으로서 전체의 29%를 차지하였고, 가장 적게 방문한 곳은 민속관광타운으로서 관광객 수는 11,616명으로 0.6%의 비율을 보였다.

<표 2-8>시·군별 관광지 입장 현황

[제주시]

년도/월	전체	한라산 국립공원	절사 휴양림	물연 양림	삼성혈	민속 자연사 박물관	민관 속광 운타	목석원
2003	1	155,662	42,331	1,536	16,354	66,890	1,521	27,030
	2	89,438	29,118	1,559	8,713	28,698	871	20,479
	3	140,141	27,269	2,745	10,704	70,383	2,012	27,028
	4	245,310	47,830	7,348	16,055	126,995	2,470	44,612
	5	266,402	71,638	8,097	18,554	121,976	3,393	42,744
	6	168,486	50,227	5,533	12,161	73,184	689	26,692
	7	118,749	28,780	5,965	11,610	48,717		23,677
	8	202,709	54,912	12,464	19,441	75,493		40,399
	9	109,882	31,380	5,562	7,570	48,975		16,395
	10	204,007	88,098	5,460	11,643	72,205		26,601
	11	141,388	53,751	4,218	8,169	52,449	212	22,589
	12	68,674	27,780	2,243	5,632	26,797	448	5,774
소계	1,910,848	553,114	62,730	146,606	812,762	11,616	324,020	

[북제주군]

년도/월	전체	항몽 유적지	한림 공원	신천지 미술관	성산해양 국립공원	산굼부리	비자림	분재 예술원	미니 월드	만장굴	
2003	1	262,623	10,187	78,923	2,881	11,554	73,645	10,471	16,355	17,480	41,127
	2	189,013	2,636	61,741	2,513	9,409	48,682	7,522	15,152	16,352	25,006
	3	256,703	4,107	85,722	4,059	12,166	78,660	8,520	16,374	17,230	29,665
	4	489,708	26,699	154,186	14,405	22,727	146,137	15,640	24,018	32,102	53,794
	5	494,545	31,323	152,938	13,729	21,270	135,758	19,294	26,117	34,314	59,802
	6	303,405	14,945	95,903	3,456	14,188	85,890	12,739	18,719	21,538	36,027
	7	280,543	5,972	91,720	4,110	13,022	59,112	11,756	21,928	30,253	42,670
	8	475,068	6,839	152,942	4,925	24,041	96,295	19,758	26,974	57,959	85,335
	9	227,002	11,771	72,865	5,170	11,588	62,908	5,907	12,590	17,041	27,162
	10	371,789	9,189	105,150	14,107	17,450	124,70	10,203	23,261	32,480	35,242
	11	256,774	4,213	77,762	4,246	13,221	87,015	5,734	17,139	22,755	24,689
	12	143,889	1,686	44,352	2,949	6,594	39,430	2,961	12,165	14,996	18,756
소계	3,751,062	129,567	1,174,204	76,550	177,230	926,002	130,505	230,792	314,500	479,275	

[서귀포시]

년도/월	전체	테디베어 뮤지엄	천지연	천제연	중민 박물관	문속 박물관	정폭 방포	여미지 관식물원
2003	1	215,078	32,301	111,591	34,021	755	36,410	
	2	173,710	27,022	84,611	29,887	610	31,580	
	3	202,523	20,744	118,046	30,326	1,201	32,206	
	4	358,186	35,499	209,221	49,970	1,674	61,822	
	5	373,778	49,772	197,589	57,158	662	67,597	
	6	242,324	29,590	127,821	40,061	511	44,341	
	7	266,383	54,403	105,537	56,790	463	49,190	
	8	477,034	96,645	187,263	97,483	935	94,708	
	9	186,323	22,936	98,798	28,056		36,533	
	10	352,743	29,518	138,754	44,212		47,732	92,527
	11	277,642	20,332	109,606	33,381		36,639	77,234
	12	194,192	20,267	69,704	22,206		25,777	56,238
소계	3,319,916	439,029	1,558,541	523,551	6,811	564,535	225,999	

[남제주군]

년도/월	전체	제주 조각공원	제주 민속촌	신영영화박 물관	성산 일출봉	산방산	마라 해양군	
2003	1	189,590	7,260	29,667	26,184	59,583	52,009	14,887
	2	138,135	7,755	24,135	20,058	43,444	33,944	8,799
	3	178,362	8,103	25,758	20,918	51,515	61,260	10,808
	4	311,030	20,730	43,319	19,714	106,973	106,654	13,640
	5	335,992	20,776	42,073	37,081	113,467	109,978	12,617
	6	211,705	11,506	27,897	21,308	65,495	71,728	13,771
	7	183,758	10,346	32,332	28,175	60,637	38,997	13,271
	8	335,076	16,798	57,128	52,234	112,498	69,960	26,458
	9	152,320	6,252	23,108	13,760	63,245	38,961	6,994
	10	253,782	17,547	33,018	21,902	95,204	69,911	16,200
	11	173,706	8,538	24,019	15,146	63,115	52,142	10,746
	12	126,281	5,557	29,896	11,817	41,887	30,511	6,613
소계	2,589,737	141,168	392,350	288,297	877,063	736,055	154,804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북제주군 지역 주요 관광지 시설에 입장한 관광객 수는 3,751,062명으로서 이중 가장 많이 입장한 관광지는 한림공원으로 입장한 관광객 수가 1,174,204명 비율은 31%를 차지하였고, 가장 적게 방문한 곳은 신천지미술관으로 관광객 수는 76,550명으로서 2%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관광지에 입장한 관광객 수는 3,319,916명으로서 제일 많이 입장한 관광지는 1,558,541명이 입장한 천지연으로서 전체 4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적게 입장한 관광지는 0.2%의 비율로서 6,811명이 입장한 중문민속 박물관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 지역내에 입장한 관광객 수는 2,589,737명으로서 이중 가장 많이 입장한 관광지는 비율 34%를 차지한 성산일출봉으로 나타났고 이때 입장한 관광객 수는 877,063명이다. 또한 가장 적게 입장한 관광지는 141,168명이 입장한 제주조각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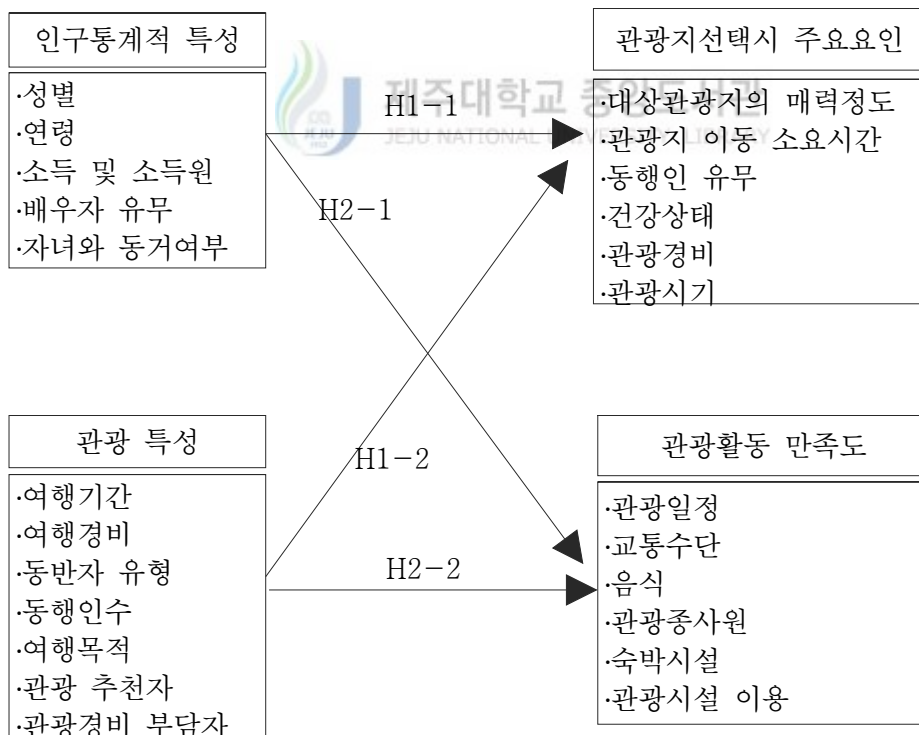
제 3 장 실증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른 관광지 선택 중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상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가설(hypothesis)이란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예비적 이론으로서,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추측적 진술이다⁶⁷⁾. 따라서 앞에서 작성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H1-1)과 관광특성(H1-2)에 따라 관광지 선택시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H2-1)과 관광특성(H2-2)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조사설계

1. 설문지 구성



1)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관광지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 관광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과 척도 유형은 다음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지선택 주요요인과 관련하여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와 관광지 이동 소요시간, 동반자 유무, 건강상태, 관광경비, 관광시기 등 6문항, 그리고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서는 관광일정과 교통수단, 음식, 관광종사원, 숙박시설, 관광지 이용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 소득 및 주요 소득원, 배우자 유무, 자녀와 동거상태 등 6문항,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은 여행기간, 여

67)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2, p.279.

행경비, 동반자 유형, 동행인 수, 여행목적, 관광추천자, 관광경비 부담자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연구영역	측정변수	척도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2. 관광지 이동 소요시간 3. 동반자 유무 4. 건강상태 5. 관광경비 6. 관광시기	리커트 5점 척도
관광활동 만족도	1. 관광일정 2. 교통수단 3. 음식 4. 관광중사원 5. 숙박시설 6. 관광시설 이용	
관광특성	1. 여행기간 2. 여행경비 3. 동반자 유형 4. 동행인 수 5. 여행목적 6. 관광추천자 7. 관광경비 부담자	명목척도
인구통계적 특성	1. 성별 2. 연령 3. 소득 4. 주요 소득원 5. 배우자 유무 6. 자녀와 동거상태	

2. 자료분석 방법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04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었다.

조사는 연구자의 주관 하에 충분히 교육받은 조사원 5인이 참여하여,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휴대해서 제주국제공항 출발대합실에서 제주관광을 마치고 이도

하는 노인관광객 25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여 25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성의한 설문지 설문 10부를 제외한 총 240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서술적 통계방법(descriptive statistical)과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Alpha)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t-test를 적용하였다.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측정척도의 평가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있어서는 총 240명 중 남성이 111명(46.3%), 여성 129명(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77명으로 32.1%를 차지하였으며, 60-64세는 68명(28.3%), 70-74세는 49명(20.4%), 75세 이상 46명(19.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가계 월 소득별로는 50-99만원이 106명(44.2%), 100-149만원 56명(23.3%), 49만원 이하 52명(21.7%), 150만원 이상 26명(10.8%)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주 소득원은 100명(41.7%)이 '자녀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1명(29.6%)은 '월급 등 자신의 소득', 69명(28.8%)은 '연금'이라고 응답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대해 169명(70.4%)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1명(29.6%)은 '별거나 사별로 혼자 살고 있다'로 나타났다.

동거상태는 178명(74.2%)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62명(25.8%)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111	46.3
	여 성	129	53.8
연 령	60-64세	68	28.3
	65-69세	77	32.1
	70-74세	49	20.4
	75세 이상	46	19.2
가계 월 소득	49만원 이하	52	21.7
	50-99만원	106	44.2
	100-149만원	56	23.3
	150만원 이상	26	10.8
주 소득원	연 금	69	28.8
	월급 등 소득	71	29.6
	자녀의 지원	100	41.7
배우자 유무	배우자와 동거	169	70.4
	별거나 사별	71	29.6
자녀와 동거여부	부부나 독신	178	74.2
	자녀와 함께	62	25.8

2. 변수의 신뢰성 검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뢰성이란 비체계적 오차(random error)와 관련된 개념으로 안정성(stability) · 일관성(consistency) ·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정확성(accuracy) · 의존가능성 (dependability)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측정값들의 분산들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⁶⁸⁾. 신뢰성은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특정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⁶⁹⁾, 각 항목의 측정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internal

68)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법문사, 1992, pp.240-243.

69) 채서일 외 2인,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3. pp.67-68.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한 Cronbach's Alpha계수를 활용하였다.

Cronbach's Alpha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성 검증결과 다음 <표 3-3>과 같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의 신뢰도 Alpha계수는 0.5719로 나타났으며 관광활동 만족도는 0.5955로 나타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3> 신뢰성 검증결과

항 목		항목제거시 알파계수	신뢰도 알파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5101	.5719
	2. 관광지 이동 시간	.5161	
	3. 동반자 여부	.5261	
	4. 건강상태	.4899	
	5. 관광 경비	.4139	
	6. 관광시기	.3953	
관광활동 만족도	1. 관광일정	.5281	.5955
	2. 교통시설	.4981	
	3. 음식	.4242	
	4. 관광종사원	.3837	
	5. 숙박시설	.5798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4498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 1 절 조사표본의 특성

1.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은 다음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행기간과 여행경비, 동반자 유형, 동행인 수, 여행목적, 관광 추천자, 여행경비 부담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행기간을 보면 3박 4일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박 3일 이하는 31.7%, 4박 5일 이상은 4.1%로 나타나 대부분 3박 4일로 제주관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비를 보면 49.6%가 2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21-35만원은 27.9%, 36만원 이상은 22.5%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번 관광을 함께한 동반자 유형에 대해서는 47.5%가 소속단체와 함께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2.5%는 배우자와 함께, 13.3%는 가족, 12.5%는 친구와 함께 제주관광을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관광을 함께 온 동행인 수를 보면 52.5%가 31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8%는 4명 이하의 개별관광, 15.8%는 5-9명, 10.8%는 10-30명의 소규모 단체로 제주관광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제주관광의 목적에 대해서는 61.7%가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감상이나 민속행사 등 행사참여라고 응답하였으며 30.8%는 요양이나 개인건강, 삼림욕 등 건강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 추천자에 대해서는 45.0%가 소속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는 가족, 13.8%는 배우자, 11.3%는 응답자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관광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람에 대해서 42.5%는 자녀, 32.5%는 자신, 25.0%는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여행기간	2박 3일 이하	76	31.7
	3박 4일	154	64.2
	4박 5일 이상	10	4.1
여행경비	20만원 이하	119	49.6
	21-35만원	67	27.9
	36만원 이상	54	22.5
동 반 자	혼 자	10	4.2
	배우자	54	22.5
	가족	32	13.3
	친구	30	12.5
	소속단체	114	47.5
동행인 수	4명 이하	50	20.8
	5-9명	38	15.8
	10-30명	26	10.8
	31명 이상	126	52.5
여행목적	삼림욕, 요양, 개인건강 등	74	30.8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행사 구경	148	61.7
	및 참여 등산이나 낚시, 골프 등 스포츠	18	7.5
관광 추천자	자신	27	11.3
	배우자	33	13.8
	가족	46	19.2
	친구	26	10.8
	소속단체	108	45.0
관광경비 부담자	자신	78	32.5
	배우자	60	25.0
	자녀	102	42.5

2.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 분석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를 5점,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건강상태가 4.16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상관광지의 매력

정도가 4.1125점, 관광 동반자 여부는 3.9083점, 관광시기 3.8571점, 관광경비 3.7625점, 관광지 이동 시간 3.250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3점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지 선택시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125	.57114
2. 관광지 이동 시간	3.2500	1.01660
3. 동반자 여부	3.9083	.71442
4. 건강상태	4.1667	.74691
5. 관광경비	3.7625	.70105
6. 관광시기	3.8571	.70902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를 5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관광일정이 4.15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시설은 3.7792점,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5917점, 관광종사원 3.5292점, 음식 3.4458점, 숙박시설 3.195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3점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활동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관광활동 만족도	평균 (5점만점)	표준편차
1. 관광일정	4.1583	.87260
2. 교통시설	3.7792	.76889
3. 음식	3.4458	.63804
4. 관광종사원	3.5292	.69002
5. 숙박시설	3.1958	1.03049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5917	.72025

제 2 절 연구가설의 검정

1. 연구가설 I의 검정

[연구가설 I]인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세부가설 I-1]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세부가설 I-2]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구분하였다.

1) 세부가설 I-1의 검정

[세부가설 I-1]을 검정하기 위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부가설 I-1-1]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1-2] 노인관광객의 연령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1-3]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1-4]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1-5]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1-6] 노인관광객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노인관광객 성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의 매력 정도’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동반자 여부’와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서는 여성(4.1938)이 남성(4.0180)에 비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도 여성(4.0543)이 남성(3.7387)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여성(4.2868)이 남성(4.0270)에 비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노인관광객이 남성 노인관광객에 비해 대상관광지의 매력도와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성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성 별		통계량	
	남성	여성	t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0180	4.1938	-2.401	0.017*
2. 관광지 이동 시간	3.3243	3.1860	1.051	0.294
3. 동반자 여부	3.7387	4.0543	-3.490	0.001**
4. 건강상태	4.0270	4.2868	-2.722	0.007**
5. 관광경비	3.6937	3.8217	-1.413	0.159
6. 관광시기	3.8257	3.8837	-0.628	0.530

* $p < .05$, ** $p < .01$

(2) 연령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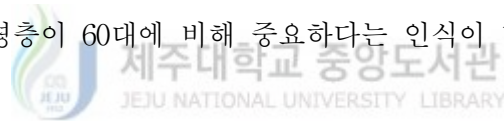
노인관광객의 연령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노인관광객 연령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경비’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관광지 이동 시간’과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연령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60-64세(3.5882)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74세(3.2653), 65-69세(3.0779), 75세 이상(3.0217)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70-74세(4.3878)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5세 이상(4.3696), 65-69세(4.1558), 60-64세(3.8824) 순으로 나타나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60대에 비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경비’에 대해 75세 이상(3.9348)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74세(3.9184), 60-64세(3.7353), 65-69세(3.5844) 순으로 나타나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60대에 비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연령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연령				통계량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0882	4.1299	4.2041	4.0217	0.870	0.457
2. 관광지 이동 시간	3.5882	3.0779	3.2653	3.0217	4.182	0.007**
3. 동반자 여부	3.7353	3.9610	3.9796	4.0000	1.906	0.129
4. 건강상태	3.8824	4.1558	4.3878	4.3696	6.237	0.001**
5. 관광경비	3.7353	3.5844	3.9184	3.9348	3.533	0.016*
6. 관광시기	3.8824	3.8533	3.8163	3.8696	0.087	0.967

* $p < .05$, ** $p < .01$

따라서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60대의 노인관광객에 비해 건강상태나 관광경비에 대해 더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관광객 가운데 젊은 층에 속하는 60대 초반의 노인관광객들은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더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노인관광객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 시간’과 ‘건강상태’, ‘관광시기’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1-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 150만원 이상(3.500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49만원(3.4643), 49만원 이하(3.3462), 50-99만원(3.0283) 순으로 나타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150만원 이상(4.346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49만원(4.3036), 49만원 이하(4.2692), 50-99만원(4.000) 순으로 나타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시기’에 대해서도 150만원 이상(4.153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49만원(3.9444), 49만원 이하(3.9038), 50-99만원(3.7170) 순으로 나타나 150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0만원 이상의 가계 월소득을 올리는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들에 비해 관광지 이동시간이나 건강상태, 관광시기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가계 월소득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가계 월소득				통계량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3.9808	4.1038	4.2500	4.1154	2.039	0.109
2. 관광지 이동 시간	3.3462	3.0283	3.4643	3.5000	3.280	0.022*
3. 동반자 여부	3.9808	3.8962	3.7857	4.0769	1.224	0.302
4. 건강상태	4.2692	4.0000	4.3036	4.3462	3.307	0.021*
5. 관광경비	3.9615	3.6604	3.7143	3.8846	2.547	0.057
6. 관광시기	3.9038	3.7170	3.9444	4.1538	3.343	0.020*

* p<.05, **p<.01

(4) 주 소득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노인관광객 주 소득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 시간’은 p<0.05 수준에서, ‘건강상태’와 ‘관광경비’, ‘관광시기’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1-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 주 소득원이 월급(4.2254)등 가계수입인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연금(4.1014), 자녀의 지원(4.0400) 순으로 나타나 월급과 같이 가계수입이 있는 노인관광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 자녀의 지원(4.350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급(4.1549), 자녀의 지원(3.9130)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지원이 주 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경비’에 대해서도 자녀의 지원(3.930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급(3.6620), 연금(3.6232) 순으로 나타나 자녀의 지

원이 주 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시기’에 대해서는 월급(3.9718)과 같은 가계수입이 있는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지원(3.9100), 연금(3.6567) 순으로 나타나 월급과 같은 가계수입이 있는 노인관광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월급과 같은 가계수입이 있는 노인관광객은 관광지 이동 시간과 관광시기에 대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지원이 주 수입원인 노인관광객은 건강상태와 관광경비를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주 소득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주 소득원			통계량	
	연금	월급	자녀의 지원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014	4.2254	4.0400	2.227	0.110
2. 관광지 이동 시간	3.4928	3.3239	3.0300	4.633	0.011*
3. 동반자 여부	3.7826	3.9437	3.9700	1.535	0.218
4. 건강상태	3.9130	4.1549	4.3500	7.372	0.001**
5. 관광경비	3.6232	3.6620	3.9300	5.117	0.007**
6. 관광시기	3.6567	3.9718	3.9100	3.981	0.020**

* p<.05, **p<.01

(5) 배우자 유무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와 ‘관광지 이동 시간’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1-5]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4.1854)은 별거나 사별한 노인관광객(3.9032)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3.3820)은 별거나 사별한 노인관광객(2.8710)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은 그렇지 않은 노인관광객에 비해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나 관광지 이동시간에 대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배우자 유무		통계량	
	배우자와 동거	별거나 사별	t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854	3.9032	3.425	0.001**
2. 관광지 이동 시간	3.3820	2.8710	3.488	0.001**
3. 동반자 여부	3.9045	3.9194	-0.141	0.888
4. 건강상태	4.1742	4.1452	0.263	0.793
5. 관광경비	3.7584	3.7742	-0.152	0.879
6. 관광시기	3.9034	3.7258	1.703	0.090

* p<.05, **p<.01

(6)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 I-1-6]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관광객(4.1953)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3.9155)보다 주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자녀와 동거여부		통계량	
	부부나 독신	자녀와 함께	t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953	3.9155	3.547	0.001**
2. 관광지 이동 시간	3.3077	3.1127	1.359	0.175
3. 동반자 여부	3.8994	3.9296	-.298	0.766
4. 건강상태	4.1953	4.0986	.915	0.361
5. 관광경비	3.7337	3.8310	-.981	0.328
6. 관광시기	3.8862	3.7887	.970	0.333

* p<.05, **p<.01

2) 세부가설 I-2의 검정

[세부가설 I-2]를 검정하기 위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한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부가설 I-2-1]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2]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3]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4]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5]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6]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2-7]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여행기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0>과 같다.

노인관광객 여행기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와 ‘관광지 이동 시간’,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 4박5일 이상(4.200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박4일(4.1883), 2박3일 이하(3.9474) 순으로 나타나 여행기간이 길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 4박5일 이상(3.800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박3일 이하(3.5526), 3박4일 순으로 나타나 여행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 4박5일 이상(4.400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박4일(3.9740), 2박3일 이하(3.7105) 순으로 나타나 여행기간이 길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3박4일(4.2987)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박3일 이하(3.9474), 4박5일 이상(3.8000) 순으로 나타나 여행기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장기간의 여행기간을 갖은 노인관광객이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와 관광지 이동시간,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여행기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여행기간			통계량	
	2박3일 이하	3박4일	4박5일 이상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3.9474	4.1883	4.2000	4.798	0.009**
2. 관광지 이동 시간	3.5526	3.0649	3.8000	7.803	0.001**
3. 동반자 여부	3.7105	3.9740	4.4000	6.190	0.002**
4. 건강상태	3.9474	4.2987	3.8000	7.247	0.001**
5. 관광경비	3.7105	3.7857	3.8000	0.306	0.737
6. 관광시기	3.8108	3.8571	4.2000	1.331	0.266

* p<.05, **p<.01

(2) 여행경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1>과 같다.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 시간’과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 ‘관광경비’, ‘관광시기’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 36만원 이상(3.7407)과 21-35만원(3.7164)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만원 이하(2.7647)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여행경비를 많이 소비한 노인관광객일수록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 36만원 이상(4.037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만원 이하(4.0252), 21-35만원(3.5970) 순으로 나타나 여행경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20만원 이하(4.2773)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6만원 이상(4.2593), 21-35만원(3.8955) 순으로 나타나 여행경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관광경비’에 대해서 36만원 이상(4.0185)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만원 이하(3.8067), 21-35만원(3.4776) 순으로 나타나 여행경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관광시기’에 대해서 36만원 이상(4.0926)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만원 이하(3.8739), 21-35만원(3.6308) 순으로 나타나 여행경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행경비를 36만원 이상 여행한 노인관광객들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지 이동시간과 동반자 여부, 여행경비, 관광시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를 지출한 노인관광객은 건강상태에 대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여행경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여행경비			통계량	
	20만원 이하	21-35만원	36만원 이상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176	4.1642	4.0370	0.749	0.474
2. 관광지 이동 시간	2.7647	3.7164	3.7407	34.428	0.001**
3. 동반자 여부	4.0252	3.5970	4.0370	9.455	0.001**
4. 건강상태	4.2773	3.8955	4.2593	6.413	0.002**
5. 관광경비	3.8067	3.4776	4.0185	10.082	0.001**
6. 관광시기	3.8739	3.6308	4.0926	6.624	0.002**

* p<.05, **p<.01

(3) 동행인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 시간’과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 친구(3.7667)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3.7407), 혼자(3.6000), 가족(3.3750)순으로 나타났으나 단체(2.8158)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도 친구(4.1333)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체(4.0088), 가족(3.8750), 혼자(3.8000), 배우자(3.611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가족(4.3125)과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체(4.3070), 친구(4.2333), 배우자(3.8148), 혼자(3.80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지 이동시간과 동반자 여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과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건강상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동행인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동행인					통계량	
	혼자	배우자	가족	친구	단체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0000	4.1296	4.0313	4.2000	4.1140	0.443	0.777
2. 관광지 이동 시간	3.6000	3.7407	3.3750	3.7667	2.8158	12.816	0.001**
3. 동반자 여부	3.8000	3.6111	3.8750	4.1333	4.0088	3.899	0.004**
4. 건강상태	3.8000	3.8148	4.3125	4.2333	4.3070	5.329	0.001**
5. 관광경비	3.6000	3.6481	3.8438	3.7000	3.8246	0.882	0.475
6. 관광시기	3.8000	3.7222	4.0625	3.7500	3.8947	1.426	0.226

* $p < .05$, ** $p < .01$

(4) 동행인 수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3>과 같다.

노인관광객 동행인 수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와 ‘동반자 여부’는 $p < 0.05$ 수준에서, ‘관광지 이동 시간’과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4-13> 동행인 수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동행인 수				통계량	
	4명 이하	5-9명	10-30	31명 이상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0400	3.8947	4.1538	4.1984	3.191	0.024*
2. 관광지 이동 시간	3.6800	3.4737	3.7692	2.9048	12.205	0.001**
3. 동반자 여부	3.7600	3.7895	3.7692	4.0317	2.708	0.046*
4. 건강상태	3.8800	4.0526	3.8462	4.3810	8.542	0.001**
5. 관광경비	3.8400	3.5789	3.7692	3.7857	1.121	0.341
6. 관광시기	3.8333	3.9474	3.7692	3.8571	0.353	0.787

* $p < 0.05$, ** $p < 0.0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 31명 이상(4.1984)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0-30명(4.1538), 4명 이하(4.0400), 5-9명(3.8947)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10-30명(3.7692)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명 이하(3.6800), 5-9명(3.4737) 순으로 나타났으나 31명 이상(2.9048)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는 31명 이상(4.0317)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9명(3.7895), 10-30(3.7692), 4명 이하(3.7600)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31명 이상(4.3810)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9명(4.0526), 4명 이하(3.8800), 10-30명(3.846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1명 이상의 단체 노인관광객들은 다른 노인관광객 보다 대상관광지의 매력도와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지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5) 관광목적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4>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시간’과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5]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 레저스포츠(4.0556)와 요양(3.8919)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상(2.8311)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는 감상(4.0473)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3.7778), 요양(3.662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감상(4.3446)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양(3.9189), 레저스포츠(3.72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상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동반자 여부와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관광지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관광목적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관광목적			통계량	
	요양	감상	스포츠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216	4.0743	4.3889	2.478	0.086
2. 관광지 이동 시간	3.8919	2.8311	4.0556	45.148	0.001**
3. 동반자 여부	3.6622	4.0473	3.7778	7.928	0.001**
4. 건강상태	3.9189	4.3446	3.7222	12.566	0.001**
5. 관광경비	3.7027	3.7838	3.8333	0.427	0.653
6. 관광시기	3.8889	3.8378	3.8889	0.144	0.866

* p<.05, **p<.01

(6) 관광 추천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5>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대상관광지 매력정도’와 ‘동반자 여부’, ‘건강상태’는 p<0.05 수준에서, ‘관광지 이동 시간’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6]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에 대해서는 가족(4.2174)이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4.1852), 단체(4.1296), 배우자(4.0909), 친구(3.8077)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배우자(3.6667)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3.6304), 자신(3.6296), 친구(3.6154) 순으로 나타났으나 단체(2.7778)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여부’에 대해서 단체(4.0648)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3.8519), 가족(3.8261), 친구

(3.0877), 배우자(3.636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단체(4.2685)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4.2308), 자신(4.2222), 가족(4.1087), 배우자(3.818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속단체에서 관광지를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동반자 여부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광지 이동시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상관광지의 매력 정도에 대해서는 가족이 추천한 노인관광객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관광추천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관광추천자					통계량	
	자신	배우자	가족	친구	단체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1852	4.0909	4.2174	3.8077	4.1296	2.442	0.048*
2. 관광지 이동 시간	3.6296	3.6667	3.6304	3.6154	2.7778	12.675	0.001**
3. 동반자 여부	3.8519	3.6364	3.8261	3.8077	4.0648	2.904	0.023*
4. 건강상태	4.2222	3.8182	4.1087	4.2308	4.2685	2.515	0.042*
5. 관광경비	3.7037	3.7273	3.8043	3.8846	3.7407	0.329	0.858
6. 관광시기	3.7778	3.6667	3.9783	4.1250	3.8241	1.962	0.101

* p<.05, **p<.01

(7)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6>과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있어서 ‘관광지 이동 시간’과 ‘건강상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2-7]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관광지 이동 시간’에 대해 자신(3.5385)과 자녀(3.2255)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주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2.9167)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 배우자(4.5000)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4.2647), 자신(3.78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6>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차이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관광경비 부담자			통계량	
	자신	배우자	자녀	F	p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4.0897	4.2000	4.0784	0.947	0.389
2. 관광지 이동 시간	3.5385	2.9167	3.2255	6.700	0.001**
3. 동반자 여부	3.7949	3.9167	3.9902	1.667	0.191
4. 건강상태	3.7821	4.5000	4.2647	19.917	0.001**
5. 관광경비	3.6538	3.7333	3.8627	2.049	0.131
6. 관광시기	3.7632	3.8000	3.9608	1.968	0.142

* p<.05, **p<.01

2. 연구가설 II의 검정

[연구가설 II]인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해 [세부가설 II-1]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세부가설 II-2] 「노인관광객의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로 구분하였다.

1) 세부가설 Ⅱ-1의 검정

[세부가설 Ⅱ-1]을 검정하기 위해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부가설 Ⅱ-1-1]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Ⅱ-1-2] 노인관광객의 연령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Ⅱ-1-3]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Ⅱ-1-4]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Ⅱ-1-5]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Ⅱ-1-6] 노인관광객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7>과 같다.

노인관광객 성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교통시설’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성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Ⅱ-1-1]은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여성(4.4961) 노인관광객이 남성(3.7658) 노인관광객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여성(3.8837) 노인관광객이 남성(3.6577) 노인관광객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성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성 별		통계량	
	남성	여성	t	p
1. 관광일정	3.7658	4.4961	-7.102	0.001**
2. 교통시설	3.6577	3.8837	-2.291	0.023*
3. 음식	3.4955	3.4031	1.119	0.264
4. 관광종사원	3.4865	3.5659	-0.888	0.375
5. 숙박시설	3.2793	3.1240	1.165	0.245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5225	3.6512	-1.382	0.168

* p<.05, **p<.01

(2) 연령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연령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8>과 같다.

노인관광객 연령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숙박시설’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관광종사원’과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연령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75세 이상(4.5870)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74세(4.5102), 65-69세(4.1818), 60-64세(3.5882)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75세 이상(4.0217)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0-74세(3.9184), 65-69세(3.8961), 60-64세(3.3824)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종사원’에 대해 60-64세(3.7206)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5세 이상(3.5217), 65-69세(3.4416), 70-74세(3.4082)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60-64세(3.7794)와 65-70세(3.2727)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으나 70-74세(2.8571)와 75세 이상(2.5652)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60-64세(3.7941)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5-70세(3.5714), 75세 이상(3.4783), 70-74세(3.4490)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광종사원과 관광시설의 편리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0-65세의 노인관광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8> 연령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연령				통계량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F	p
1. 관광일정	3.5882	4.1818	4.5102	4.5870	19.846	0.001**
2. 교통시설	3.3824	3.8961	3.9184	4.0217	9.634	0.001**
3. 음식	3.5588	3.3766	3.4490	3.3913	1.127	0.339
4. 관광종사원	3.7206	3.4416	3.4082	3.5217	2.720	0.045*
5. 숙박시설	3.7794	3.2727	2.8571	2.5652	18.126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7941	3.5714	3.4490	3.4783	2.900	0.036*

* p<.05, **p<.01

(3)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다.

노인관광객 가계 월소득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관광종사원’,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가계 월소득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1-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49만원 이하(4.4808)는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99만원(4.1887), 100-149만원(4.0536), 150만원 이상(3.6154) 순으로 나타나 가계 월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49만원 이하(4.0192)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100-149만원(3.7679), 150만원 이상(3.7308), 50-99만원(3.6792)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해 150만원 이상(3.6923)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9만원 이하(3.4808), 100-149만원(3.4643), 50-99만원(3.3585)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종사원’에 대해 150만원 이상(3.8077)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9만원 이하(3.6923), 100-149만원(3.5179), 50-99만원(3.3868)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150만원 이상(3.5385)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49만원(3.5000), 50-99만원(3.1887) 순으로 나타났으나 49만원 이하(2.7115)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가계 월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가계 월소득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가계 월소득				통계량	
	49만원 이하	5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F	p
1. 관광일정	4.4808	4.1887	4.0536	3.6154	6.446	0.001**
2. 교통시설	4.0192	3.6792	3.7679	3.7308	2.365	0.072
3. 음식	3.4808	3.3585	3.4643	3.6923	2.050	0.108
4. 관광종사원	3.6923	3.3868	3.5179	3.8077	4.039	0.008**
5. 숙박시설	2.7115	3.1887	3.5000	3.5385	6.889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7500	3.4245	3.5536	4.0385	6.555	0.001**

* p<.05, **p<.01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150만원 이상(4.0385)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9만원 이하(3.7500), 100-149만원(3.5536), 50-99만원 (3.424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9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인관광객은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해 만족도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인관광객은 음식과 관광종사원,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만족도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주 소득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0>과 같다.

노인관광객 주 소득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숙박시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주 소득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1-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자녀의 지원(4.5100)이 주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금(3.9130), 월급(3.9014)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자녀의 지원(3.9400)이 주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급(3.7606), 연금(3.5652)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월급(3.5915) 등 가계수입과 연금(3.4203)이 주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의 지원(2.7600)이 주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지원이 주소득원인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주 소득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주 소득원			통계량	
	연금	월급	자녀의 지원	F	p
1. 관광일정	3.9130	3.9014	4.5100	15.629	0.001**
2. 교통시설	3.5652	3.7606	3.9400	5.045	0.007**
3. 음식	3.4058	3.5070	3.4300	0.491	0.612
4. 관광종사원	3.5072	3.5915	3.5000	0.412	0.663
5. 숙박시설	3.4203	3.5915	2.7600	18.075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5362	3.7183	3.5400	1.567	0.211

* p<.05, **p<.01

(5) 배우자 유무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1>과 같다.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1-5]는 기각되었다.

<표 4-21>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배우자 유무		통계량	
	배우자와 동거	별거나 사별	t	p
1. 관광일정	4.1183	4.2535	-1.096	0.274
2. 교통시설	3.8225	3.6761	1.349	0.179
3. 음식	3.4793	3.3662	1.255	0.211
4. 관광종사원	3.5444	3.4930	0.526	0.599
5. 숙박시설	3.2367	3.0986	0.947	0.344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6391	3.4789	1.577	0.116

* p<.05, **p<.01

(6)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2>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 < 0.01$ 수준에서, ‘음식’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1-6]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음식’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관광객(3.5056)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3.2742)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관광객(3.3202)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2.8387)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관광객(3.6966)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3.2903)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노인관광객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관광객에 비해 음식과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자녀와 동거여부		통계량	
	부부나 독신	자녀와 함께	t	p
1. 관광일정	4.1011	4.3226	-1.728	0.085
2. 교통시설	3.7921	3.7419	0.442	0.659
3. 음식	3.5056	3.2742	2.486	0.014*
4. 관광종사원	3.5674	3.4194	1.458	0.146
5. 숙박시설	3.3202	2.8387	3.231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6966	3.2903	3.940	0.001**

* $p < .05$, ** $p < .01$

2) 세부가설 II-2의 검정

[세부가설 II-2]를 검정하기 위해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한 노인관광객의 관광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세부가설 II-2-1]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2]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3]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4]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5]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6]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세부가설 II-2-7]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여행기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노인관광객 여행기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관광종사원’, ‘숙박시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음식’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여행기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3박4일(4.4935)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박3일 이하(3.6316), 4박5일 이상(3.0000)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3박4일(3.9545)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박5일 이상(3.6000), 2박3일 이하(3.4474)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해서는 2박3일 이하(3.6053)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박5일 이상(3.4000), 3박4일(3.3701)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종사원’에 대해서는 4박5일 이상(4.2000)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박3일 이하(3.6053), 3박4일(3.4481)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4박5일 이상(4.2000)과 2박3일 이하(3.5789)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3박4일(2.9416)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았다.

따라서 3박4일 일정의 노인관광객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2박3일 이하는 음식, 4박5일 이상은 관광종사원과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여행기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여행기간			통계량	
	2박3일 이하	3박4일	4박5일 이상	F	p
1. 관광일정	3.6316	4.4935	3.0000	47.158	0.001**
2. 교통시설	3.4474	3.9545	3.6000	12.441	0.001**
3. 음식	3.6053	3.3701	3.4000	3.557	0.030*
4. 관광종사원	3.6053	3.4481	4.2000	6.542	0.002**
5. 숙박시설	3.5789	2.9416	4.2000	16.607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6579	3.5325	4.0000	2.479	0.086

* p<.05, **p<.01

(2) 여행경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음식’, ‘숙박시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20만원 이하(4.6723)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6만원 이상(3.7963), 21-35만원(3.5373)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20만원 이하(3.9748)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6만원 이상(3.7037), 21-35만원(3.4925)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해서 36만원 이상(3.6667)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1-35만원(3.6567), 20만원 이하(3.2269) 순으로 나타나 여행경비를 많이 소비한 노인관광객일수록 그렇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36만원 이상(3.7407)과 21-35만원(3.6418)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만원 이하(2.6975)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여행경비를 많이 소비한 노인관광객일수록 그렇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여행경비를 사용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36만원 이상의 여행경비를 사용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음식과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여행경비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여행경비			통계량	
	20만원 이하	21-35만원	36만원 이상	F	p
1. 관광일정	4.6723	3.5373	3.7963	64.822	0.001**
2. 교통시설	3.9748	3.4925	3.7037	9.382	0.001**
3. 음식	3.2269	3.6567	3.6667	15.598	0.001**
4. 관광종사원	3.4706	3.5373	3.6481	1.239	0.292
5. 숙박시설	2.6975	3.6418	3.7407	35.823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5378	3.5373	3.7778	2.353	0.097

* p<.05, **p<.01

(3) 동행인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5>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음식’, ‘숙박시설’은 p<0.01 수준에서,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관광종사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동행인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단체(4.6404)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3.8438), 혼자(3.8000), 친구(3.7000), 배우자(3.6481)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단체(4.000)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3.7667), 가족(3.6563), 배우자(3.5370), 혼자(3.000)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해서 배우자(3.6852)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3.6667), 가족(3.4688), 단체(3.2895), 혼자(3.2000)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혼자(3.8000) 관광 온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3.7778), 가족(3.5313), 친구(3.4667) 순으로 나타났으나 단체(2.7018)로 온 노인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혼자(4.0000) 관광 온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3.7963), 단체(3.5263), 친구(3.5000), 가족(3.437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다른 노인관광객에 비해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온 노인관광객은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배우자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동행인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동행인					통계량	
	혼자	배우자	가족	친구	단체	F	p
1. 관광일정	3.8000	3.6481	3.8438	3.7000	4.6404	23.060	0.001**
2. 교통시설	3.0000	3.5370	3.6563	3.7667	4.0000	7.126	0.001**
3. 음식	3.2000	3.6852	3.4688	3.6667	3.2895	5.238	0.001**
4. 관광종사원	3.4000	3.5370	3.8438	3.4333	3.4737	2.120	0.079
5. 숙박시설	3.8000	3.7778	3.5313	3.4667	2.7018	16.469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4.0000	3.7963	3.4375	3.5000	3.5263	2.690	0.032*

* p<.05, **p<.01

(4) 동행인 수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다.

노인관광객 동행인 수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음식’, ‘숙박시설’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관광종사원’과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동행인 수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4]는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31명 이상(4.6508)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명 이하(3.8400), 10-30명(3.5385), 5-9명(3.3684)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31명 이상(4.0238)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30명(3.8462), 5-9명(3.5263), 4명 이하(3.3200) 순으로 나타나 동행인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음식’에 대해 10-30명(3.8462)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9명(3.5263), 4명 이하(3.5200), 31명 이상(3.3095)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종사원’에 대해 10-30명(3.8462)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명 이하(3.6400), 5-9명(3.5263), 31명 이상(3.420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10-30명(3.7692)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명 이하(3.7600), 5-9명(3.5789) 순으로 나타났으나 31명 이상(2.7381)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4명 이하(3.8000)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9명(3.6316), 10-30명(3.6154), 31명 이상(3.4921) 순으로 나타나 동행인 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1명 이상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보다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10-30명이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음식과 관광종사원, 숙박시설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명 이하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은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6> 동행인 수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동행인 수				통계량	
	4명 이하	5-9명	10-30	31명 이상	F	p
1. 관광일정	3.8400	3.3684	3.5385	4.6508	48.408	0.001**
2. 교통시설	3.3200	3.5263	3.8462	4.0238	13.449	0.001**
3. 음식	3.5200	3.5263	3.8462	3.3095	6.126	0.001**
4. 관광종사원	3.6400	3.5263	3.8462	3.4206	3.397	0.019*
5. 숙박시설	3.7600	3.5789	3.7692	2.7381	22.497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8000	3.6316	3.6154	3.4921	2.282	0.080*

* p<.05, **p<.01

(5) 관광목적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7>과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음식’, ‘관광종사원’, ‘숙박시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교통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목적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5]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감상(4.3378)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양(3.9189), 레저스포츠(3.6667)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해 레저스포츠(3.9444)를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상(3.7973), 요양(3.7027)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종사원’에 대해 레저스포츠(4.1667)를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양(3.7162), 감상(3.3581)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요양(3.7297)과 레저스포츠(3.0556)를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상(2.9459)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요양(3.9189)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3.7778), 감상(3.405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레저스포츠를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다른 노인 관광객보다 음식과 관광종사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감상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관광일정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노인 관광객보다 높지만 숙박 시설은 불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양을 목적으로 방문한 노인 관광객은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7> 관광목적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관광목적			통계량	
	요양	감상	스포츠	F	p
1. 관광일정	3.9189	4.3378	3.6667	9.390	0.001**
2. 교통시설	3.7027	3.7973	3.9444	0.822	0.441
3. 음식	3.6216	3.3176	3.7778	8.771	0.001**
4. 관광종사원	3.7162	3.3581	4.1667	16.943	0.001**
5. 숙박시설	3.7297	2.9459	3.0556	16.300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9189	3.4054	3.7778	14.700	0.001**

* p<.05, **p<.01

(6) 관광 추천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노인 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다.

노인 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숙박시설’은 p<0.01 수준에서,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추천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6]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단체(4.6574)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4.0370), 친구(3.8077), 배우자(3.6364), 가족(3.6304)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단체(4.0463)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3.8519), 가족(3.5000)과 친구(3.5000), 배우자(3.4545)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배우자(3.6970)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3.6538), 자신(3.5926), 가족(3.5435) 순으로 나타났으나 단체(2.6852)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해 배우자(3.9394)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3.7778), 친구(3.5385), 가족(3.5217), 단체(3.48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8> 관광추천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관광추천자					통계량	
	자신	배우자	가족	친구	단체	F	p
1. 관광일정	4.0370	3.6364	3.6304	3.8077	4.6574	23.696	0.001**
2. 교통시설	3.8519	3.4545	3.5000	3.5000	4.0463	8.002	0.001**
3. 음식	3.7037	3.5152	3.4783	3.4615	3.3426	1.972	0.100
4. 관광종사원	3.4074	3.5455	3.7826	3.3846	3.4815	2.225	0.067
5. 숙박시설	3.5926	3.6970	3.5435	3.6538	2.6852	15.034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7778	3.9394	3.5217	3.5385	3.4815	3.269	0.012*

* p<.05, **p<.01

따라서 단체가 추천한 관광지를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다른 노인관광객보다 관광일정과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숙박시설에 대

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관광지를 추천한 노인관광객은 숙박시설과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9>와 같다.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관광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관광일정’과 ‘숙박시설’은 $p < 0.01$ 수준에서, ‘교통시설’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의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2-7]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관광일정’에 대해 배우자(4.4333)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4.2647), 자신(3.8077)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에 대해 자녀(3.8824)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3.8667), 자신(3.5769)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에 대해 자신(3.7949)이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2.9608)와 배우자(2.8167)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관광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가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관광경비를 부담한 노인관광객은 숙박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9> 관광경비 부담자에 따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 차이

관광활동 만족도	관광경비 부담자			통계량	
	자신	배우자	자녀	F	p
1. 관광일정	3.8077	4.4333	4.2647	10.863	0.001**
2. 교통시설	3.5769	3.8667	3.8824	4.109	0.018*
3. 음식	3.5769	3.3167	3.4216	2.999	0.052
4. 관광종사원	3.5513	3.5500	3.5000	0.157	0.854
5. 숙박시설	3.7949	2.8167	2.9608	23.668	0.001**
6.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3.7179	3.5333	3.5294	1.788	0.169

* p<.05, **p<.01

제 3 절 분석결과의 해석

1. 분석결과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해서 건강상태(4.1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4.1125), 관광 동반자 여부(3.9083), 관광시기(3.8571), 관광경비(3.7625), 관광지 이동 시간(3.250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서 관광일정(4.1583)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시설(3.7792),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3.5917), 관광종사원(3.5292), 음식(3.4458), 숙박시설(3.1958)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I]과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II]을

검정한 결과 채택되었으며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를 가설의 채택여부에 따라 <표 4-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30> 가설의 채택여부

가 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설 I	1.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1. 성별	채 택
	2. 연령	채 택
	3. 소득	채 택
가설 II	4. 주요 소득원	채 택
	5. 배우자 유무	기 각
	6. 자녀와 동거상태	기 각
	2. 관광특성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
	1. 여행기간	채 택
	2. 여행경비	채 택
	3. 동반자 유형	채 택
4. 동행인 수	채 택	
5. 여행목적	채 택	
6. 관광추천자	채 택	
7. 관광경비 부담자	기 각	
가설 I	1.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활동 만족도
	1. 성별	기 각
	2. 연령	채 택
	3. 소득	채 택
가설 II	4. 주요 소득원	채 택
	5. 배우자 유무	기 각
	6. 자녀와 동거상태	채 택
	2. 관광특성	관광활동 만족도
	1. 여행기간	채 택
	2. 여행경비	채 택
	3. 동반자 유형	채 택
4. 동반자 수	채 택	
5. 여행목적	채 택	
6. 관광추천자	채 택	
7. 관광경비 부담자	채 택	

2. 분석결과의 해석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관광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해서 건강상태(4.1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4.1125), 관광 동반자 여부(3.9083), 관광시기(3.8571), 관광경비(3.7625), 관광지 이동 시간(3.250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은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무리한 관광일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등록과 안전대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가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관광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서 관광일정(4.1583)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시설(3.7792),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3.5917), 관광종사원(3.5292), 음식(3.4458), 숙박시설(3.1958)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제주지역 노인관광객들은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관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종사원과 음식,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과 노인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관광음식, 숙박시설도 침대보다는 온돌위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집단에 비해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 노인관광객과 배우자가 있는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는 주로 장기간 여행을 한 노인관광객이나 31명 이상의 단체 노인관광객, 가족이 추천한 노인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풍시즌이나 겨울철 설경, 신년 해맞이 등과 같은 시기에 여성 노인관광객과 부부 노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단체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광고를 통해서 가족

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른 집단에 비해 관광지 이동 소요시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60대 초반, 1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주소득원이 자신의 소득, 배우자가 있는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여행을 한 노인관광객과 36만원 이상의 여행경비를 지출한 노인관광객, 친구와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관광지 이동 소요시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간 노인 관광상품은 주 5일제 확산으로 노인 자신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코스과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른 집단에 비해 동반자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장기간 여행을 한 노인관광객과 36만원 이상 여행경비를 지출한 노인관광객, 친구와 동행한 노인관광객, 31명 이상의 단체 노인관광객, 소속단체가 추천한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는 노인관광객을 위해서는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 관광상품은 노인대학이나 노인당 같은 각종 노인단체를 위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 노인관광객과 7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150만원의 수입이 있는 고소득층, 주소득원이 자녀의 지원인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박5일 이상의 여행을 한 노인관광객, 가족과 함께 동행한 노인관광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지원을 받지만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부유층 노인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관광상품은 노인관광객들의 건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는 장기간의 관광일정으로 만들고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해도 노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품격 고가의 관광상품은 각종 보험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노인이나 가족들이 건강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관광상품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지역인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노인관광객은 주소득원이 자녀의 지원인 노인관광객과 20만원 이하의 여행

경비를 지출한 노인관광객, 단체와 함께 동행한 노인관광객, 단체가 추천한 노인관광객, 배우자나 자녀가 관광비용을 부담한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의 관광상품으로 단체로 온 노인관광객들이 불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가의 관광상품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노인관광객들이 하루일정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노인관광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광지 선택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인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연구방법으로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노인관광객과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분석의 준거로 삼았으며, 실증연구의 경우 연구지역인 제주지역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에서 제주관광을 마치고 이도하는 노인관광객 25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250부의 설문 중 신뢰성이 떨어져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 10부를 제외한 총 240부를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패키지를 활용하여 신뢰성 검증과 분산분석(ANOVA)과 t-test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 대해서 건강상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관광 동반자 여부, 관광시기, 관광경비, 관광지 이동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관광객의 관광활동 만족도에 대해서 관광일정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시설, 관광시설 이용의 편리성, 관광종사원, 음식, 숙박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I]과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광활동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II]를 검정한 결과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관광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특성에 따라 관

광지 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노인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 선택주요요인에서 건강상태, 자연경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층의 기호에 맞게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한 관광상품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으로 분류하여 말하면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경우 건강회복이 주된 관심사 이므로 이에 맞는 관광시설 즉, 노인건강센터, 질병예방운동센터, 헬스나 스파, 산림욕장 등을 들 수 있다.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우 골프, 게이트 볼, 배드민턴 등 노인층에게도 적합한 스포츠와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거나 건강 박람회 등의 이벤트도 홍보를 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등록과 안전대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관광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관광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의 제주지역 노인관광객들은 관광일정과 교통시설, 관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종사원과 노인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관광객이 입맛에 맞는 관광음식, 숙박시설은 침대보다도 온돌 위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을 입지로 선정해야하며 조망은 양호하고 바다나, 산림 주변의 좋은 경관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해야 되며, 노인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종사원들이 노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간호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풍시즌이나 겨울철 설경, 신년 해맞이 등과 같은 시기에 여성 노인관광객과 부부 노인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상품은 단체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광고를 통해서 가족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기간 노인 관광상품은 주 5일제 확산으로 노인 자신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함께 여행을 할 수 없는 노인관광객을 위해서는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 관광상품은 노인대학과 같은 각종 노인단체를 위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유층 노인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관광상품은 노인관광객들의 건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여유 있는 장기간의 관광일정으로 만들고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해도 노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품격 고가의 관광상품은 각종 보험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노인이나 가족들이 건강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숙박시설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노인관광객은 주 소득원이 자녀의 지원으로 관광한 노인관광객과 20만원이하의 여행경비를 지출한 노인관광객, 단체와 함께 동행한 노인관광객, 배우자나 자녀가 관광비용을 부담한 노인관광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의 관광상품으로 단체로 온 노인관광객들이 불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가의 관광상품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노인관광객들이 하루일정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지역인 제주지역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지 선택 주요요인과 관광활동 만족도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다양한 노인관광상품을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지역인 제주지역을 방문한 노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는 점과 조사를 1년간 계절별, 월별로 실시하여 노인관광에 대한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을 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 노인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인관광객에 대한 관광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전 지역의 관광지와 해외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경호·고승익, 「관광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3.
- 김진섭, 「관광학 원론」, 대왕사, 2004.
-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7.
- 박선희, 「관광자원론」, 형설출판사, 2002.
-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02.
- 서병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1.
- 21C 호텔관광연구회, 「관광마케팅」, 학문사, 2002, p.136.
- 이종문, 「복지관광의 이해」 일신사, 1999.
- 이학식 외 2인 「소비자 행동」, 법문사, 2003, p.122~123.
- 유필화 외2인, 「현대마케팅론」, 박영사, 2002, p.45~47.
-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1992.
- 제주발전연구원, 「국내관광시장의 유형별 마케팅 전략 수립」 2002.
- 채서일 외 2인,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3.
-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법문사, 1992.
- 최병길, “제주관광의 정체성 변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2000.
- 최병룡, 「최신 소비자 행동론」, 법문사, 1990.
- 한영권, 「관광학 개론」 미학사, 2003, p.128~135.
- 김지영, “실버고객의 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00.

- 김정희, “소비자 가치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995,
- 김동배, “미래사회와 노인여가 활동”,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9.
-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2002.
- 김진탁,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 김 현, “노인복지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학회, 2003.
- 김현조, “노인문제와 사회정책”, 「사회복지」 통권5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 오상훈, “관광자의 성격과 관광목적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2.
- 이애주,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88.
- 이환태, “관광유형별 해외관광지 선택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1997.
- 조구현, “노인복지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정책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3.
- 신현웅, “문화·스포츠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제주도,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4.
- , 「장래인구추계」, 2001년 12월.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6.
- 한국관광협회, 「월간 관협」, 1991년 7월.
- <http://www.tour.go.kr>(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국외문헌

- Anderson, Beverlee B. and Lynn Langmeyer, "The Under-50 Travelers : A Profile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0, Spring, 1991.
- Bearden, W. O. and J. B. Mason, "Profiling the Shopping Behavior of Elderly Consumers", *The Gerontologist*, Vol. 18, 1978.
- Bennett, Peter D. and Robert M. Mandell, "Prepurchas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ew Car Purchasers : The Learning Hypothe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6, 1969.
- Best, A. and A. Andreasen, "Consumer Complain dose Business Respond", *Havard Business Review*, 1977.
- Blazey, Michael A., "The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a Senior Travel Progra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6, No.1, 1987.
- Clawon, M. & Jack Kentsch, *Economic of Outdoor Recreation*. The John Hopking, 1976.
- Holloway. J. Christopher , Macdonald and Evans, *The Business of Tourism*, 1986,
- Darden, W. R. and W. D. Jr. Perreault, "A Multivariate Analysis Media Exposure and Vacation Behavior with Life Style Covariat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No.2, 1975.
- Dybka, J., "Overseas Travel to Canada: New Research on the preception and preferences of the pleasure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of Travel Research*, Vol. 27, 1988.
- Engel, J. F., and R. D. Blackwell, *Comsumer Behavior*(4th edition), Heinsdale: The Dryden Press, 1982.
- Flescher. A. & Pizam. A. "Tourism constraints among Israeli senio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9. 1. 2002.

- Harvighurst, R. J., *The Sociological meaning of Aging*, Jack botwitick, Aging and Behavio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78.
- Hawkins, Del I., Coney, Kenneth A. and Roger J. Bost, *Consumer Behavior*, Business Publication, Inc., Dallas, 1980.
- Hodgson, Peter, "New Tourism Product Developmenet–Market research’s role," *Tourism Management*, Vol11, No. 1, March 1990.
- Jenkin, R. L., "Family Vacation Decision–Mark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6, No. 4, 1978.
- Jone. L. Crompton & Um, S. H. "Attitsde Determinants in Tourism Destination Choce," *Annals of Tourism of Tourism Research*, Vol. 17, 1990.
- Kim, Jaesoo, Wei, Sherrie and Hein Ruys, "Segmenting the market of West Australian Senior Tourist using an artficial neural network," *Tourism Management*, Vol. 24 No. 1, February 2001.
-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ication and Control*, 6th, Pretice–Hall, 1988.
- McCall, Suzanne H., "Meet the Workwives", *Journal of Marketing*, Vol. 41, 1977.
- Meyer, W., Aktivitat im Urlaub. in Fortschritte der Marktppsychologie, K. D. Hartmannand K. F. Kieppler, eds., 1977.
- Monroe, Kent B. and J. B. Guitiman, "A Path–Analysis Explorati on of Retail patronage Influ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2, 1975.
- Spoles, George B., *Fashion–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 Bugress Publishing Co., 1979.
- Var, T, R, D. Beck & P. Loftus, "Determination of Touristic Attractiveness of The Touristic Areas; British Coumb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 15. 1977.

Van Raaij, W. F. and D. A. Fariancken, *A Longitudinal Study of Vacationers Information Acquisition Behavior*, Papers on Economic Psychology,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1977.

-----,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3, No. 3, 1981.

-----, "Vacation Decisions, Activities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4.

Van Raaij, W. F. and G. Eilander, "Consumer Economizing Tactics for Ten product Categor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0, 1983.



부 록 : 설 문 지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에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설문지는 “노인관광객의 관광지 선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석사논문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본 설문지는 완전히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연구를 위하여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의 대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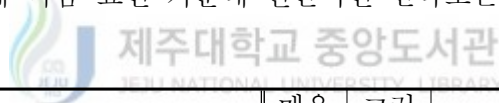
지도교수: 최 병 길

조 사 자: 허 창 훈

8. 제주관광을 결정하실 때 다음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지 선택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 지않다
1)	대상관광지의 매력정도	①	②	③	④	⑤
2)	관광지 이동 소요시간	①	②	③	④	⑤
3)	동반자 유무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이나 동반자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5)	여행경비	①	②	③	④	⑤
6)	관광시기(계절)	①	②	③	④	⑤

9. 제주관광을 하신 후에 다음 요인 가운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관광 만족도 조사		매우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하루관광일정은 시간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관광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편리하고 안락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식이 깨끗하고 맛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관광관련 종사원들은 친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숙박시설이 깨끗하고 편안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관광시설 이용시 편리하고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This work is designed to grasp the choice factors of tourist site which are important for attracting the aged tourists for the preparation of the aging society and to offer an alternative proposal of tourism activity to satisfy aged touris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firstly, the condition of aged tourists' health and the landscape of the tourist site are most important.

Secondly, most of aged tourists who visited jeju island are satisfied in the tour schedule, transportation and tourist faciliti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ch tourist commodities as enjoying of the autumn leaves, the landscape of snow in winter, the sunrise of the New Year for the aged tourists and aged couple tourists. They think the landscape most important.

Fourthly, a short term tourism commodities will be programmed to invite aged couple tourist and for the high income bracket because of the five day work week.

Fifthly,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group tourist commodities which are advertised to the aged people organization ,such as aged people university.

finally, the satisfaction of the aged tourists who bought the cheap is tourism commodity very important. Therefore it is better to make a tourist commodity with comfortable accommodation than to choose an low priced tourist commodities.